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2969-13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2024-2028

Seoul Universal Design Master Plan

목 차

제1장 계획의 개요	2
1-1. 배경 및 목적	4
1-2. 범위 및 체계	5
1-3.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설정	6
제2장 현황조사 및 분석	8
2-1. 일반 현황	10
2-2. 1차 기본계획	15
2-3. 유니버설디자인 실태조사	17
2-4. 인식 조사	21
2-5. 관련 제도	25
2-6. 국내·외 사례	28
2-7. 종합 소결	30
제3장 전략방향 설정	32
3-1. 기본방향	34
3-2. 비전 및 목표	38
3-3. 추진전략	39
제4장 전략별 추진과제	40
4-1. 추진과제 개요	42
4-2. 선도사업	44
4-3. 추진과제	64
4-4. 실행전략	90
제5장 실행방안	92
5-1. 실행방안 개요	94
5-2. 관리 및 운영체계	95
5-3. 실행 및 확산 역할	101
부록	108
인식조사지(시민, 공직자)	110
그림차례	121
표차례	127

5개계획 위계정립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미래변화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도시”

시민 삶의 질 개선

공공 영역 (서울시 /지자체 실행)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적용 기간

3년 (2024 ~ 2026년)

5년 (2024 ~ 2028년)

비전/목표

디자인으로 공공가치를 구현하는
시민중심 디자인도시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도시
인지 Easy Seoul

사회문제해결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약자 배려·포용 정책 확산
차별없는 문화도시 실현
선도적 스마트도시 구현
지속 가능한 확산방안 마련
효율적 실행·관리체계 구축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사회적 소외해소를 위한 디자인

친근한 UD

일상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즐거운 UD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디자인

편리한 UD

협력을 증진하는 디자인

나누는 UD

주요 사업

액티브 공공공간/ 일상회복 디자인

교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소외해소 디자인/ 약자동행 디자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서울산 유니버설디자인 특화

일상재난 예방 디자인/ 지속가능 환경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서울형 관광안내센터 개선

사회갈등 예방 디자인/ 세대공감 디자인

전 세대를 포용하는 초세대 놀이공간 조성

ESG협력 거버넌스/ 지역공헌 협력 디자인

게임으로 만드는 학교 UD맵 및 교육 고도화

기본방향의 정합성

사업실행 수단

기본방향의 정합성

사업실행 수단

기본방향의 정합성

사업실행 수단



본 계획은 2016년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정 이후 2018년 ‘제1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조례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5년이 지난 2023년 2차 계획인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2024–2028’을 수립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2024–2028’은 유니버설디자인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도래의 시기에 발맞춰 과거보다 확장된 개념으로서 더 많은 사용성, 더 깊이 있는 사용자, 더 넓은 사용 범위로 포용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해 조사 및 분석을 근거로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2.0의 목표와 비전,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목표 연도인 2028년까지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보다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하고, 모든 시민이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확산적인 역할을 견인한다.

제1장 계획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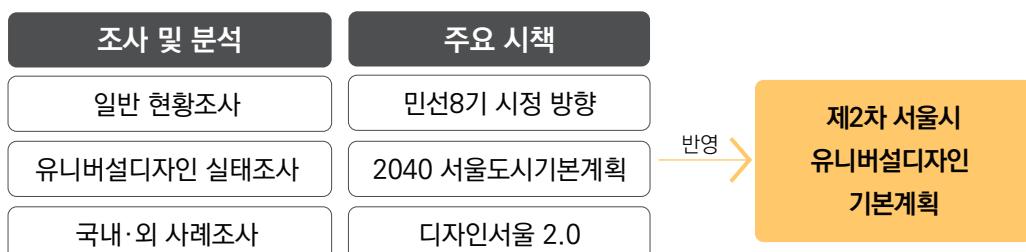
1-1. 배경 및 목적	4
1-2. 범위 및 체계	5
1-3.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설정	6

제1장 조사의 개요

1-1. 배경 및 목적

1-1-1. 배경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필수 계획으로,
포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간 도래
 -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일반 현황조사, 유니버설디자인 실태조사 및 민선8기, 디자인
서울2.0 등 주요 시책과 연계 반영



[그림 1] 제2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배경

1-1-2. 목적

-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차별 없이 서울을 즐기며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기반 마련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강화 및 확산을 위한 실행체계 구축으로 전략적인 2차 기본계획 수립

1-2. 범위 및 체계

1-2-1.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25개 자치구)
- 시간적 범위 : 2024~2028(5개년)
- 내용적 범위
 - 서울시 일반 현황,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현황 및 체계, 기존정책 성과 분석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국·내외 관련 제도, 주요 정책 및 현황 분석
 - 제2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방향·추진목표 설정
 - 5년간 실행 가능한 종합적·체계적인 추진전략 수립
 - 제2차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추진과제 및 선도사업 개발
 - 제도 개선, 운영체계 개선, 정책·민관 협산, 교육 및 홍보 등 실행방안 마련

1-2-2. 체계

- 2016년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정 이후 통합 가이드라인 및 1차 기본계획 수립, 센터 설립 및 의무적용 등 유니버설디자인 초석 마련



[그림 2] 제2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체계

1-3.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설정

1-3-1.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 개념 정의

- 유니버설디자인은 미국의 건축가이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교수인 로널드 L. 메이스에 의해 제창되었으며,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것을 의미
-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설계하는 것

○ 유사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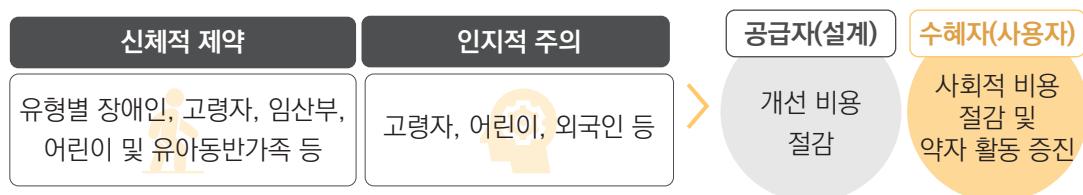
- 유니버설디자인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장벽 없는 건축설계’의 일환으로 태생된 배리어 프리 디자인과 디지털 기반의 현대사회에서 탄생한 개념인 인클루시브 디자인 차이 검토

명칭	개념 정의
배리어프리 디자인 (Barrier Free Design)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신체적 한계를 가진 사람들을 기능적으로 보완해주고, 물리적 제약을 제거하기 위해 고려된 디자인
인클루시브 디자인 (Inclusive Design)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물리적 및 비물리적 영역 모두 포함한 디자인

[표 1] 유니버설디자인 유사개념

○ 적용 대상 및 효과

- 연령, 신체적 조건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개인마다 상이하므로,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양한 사용자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적용을 목적으로 개발 필요
- 신체적 제약 및 인지적 주의가 필요한 대상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며, 초기 설계단계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은 추후 개선 비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약자 활동 증진 효과



[그림 3]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상 및 효과

1-3-2. 유니버설디자인 원칙 및 목표

○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

- 유니버설디자인을 제창한 로널드 메이스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유니버설디자인 센터에서 7가지 원칙 정립

원칙	내용
동등한 사용	특정한 조건의 사람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디자인
사용상의 유연성	다양한 개인적 기호 및 능력을 허용하는 디자인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사용자의 경험, 지식, 언어능력 등과 무관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쉽게 인지 가능한 정보	주변 환경이나 사용자의 감각적 능력과는 무관하게 필요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디자인
오류에 대한 포용력	예기치 않은 동작에 의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디자인
최소의 물리적 노력	신체적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고 효율적, 쾌적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여유 있는 공간의 확보	사용자의 신체적 크기, 자세, 이동 능력과 관계없이 쉽게 접근, 조작이 가능한 적절한 크기 및 넓이를 확보한 디자인

[표 2]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

○ 유니버설디자인 8목표

- 미국 버팔로대학교의 포괄 디자인과 환경 접근 센터는 사회 참여와 건강의 요소를 포함하여 7원칙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유니버설디자인 8가지 목표 제시

목표	내용
신체 적합성	다양한 신체 크기와 능력 수용
편안함	신체 기능의 바람직한 한계 내에서 요구 사항 유지
인지성	사용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장
이해	직관적이고 명확하며 모호하지 않은 작동과 사용 방법
건강과 복지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및 부상 예방에 기여
사회	모든 집단에 대한 존엄성 존중
개인화	통합 선택의 기회와 개인적 선호 표현
문화적 수용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맥락 존중 및 강화

[표 3] 유니버설디자인 8목표 1

1 Steinfeld and Maisel(2012)

제2장 현황조사 및 분석

2-1. 일반 현황	10
2-2. 1차 기본계획	15
2-3. 유니버설디자인 실태조사	17
2-4. 인식 조사	21
2-5. 관련 제도	25
2-6. 국내·외 사례	28
2-7. 종합 소결	30

제2장 현황조사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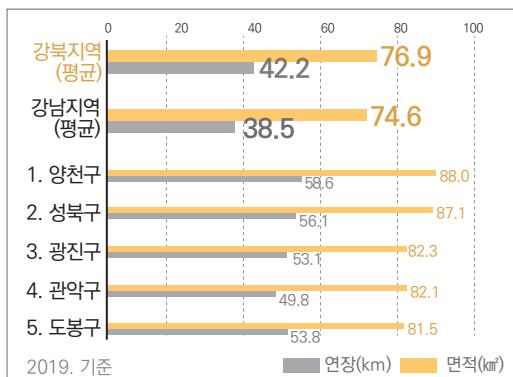
2-1. 일반 현황

2-1-1. 입지 및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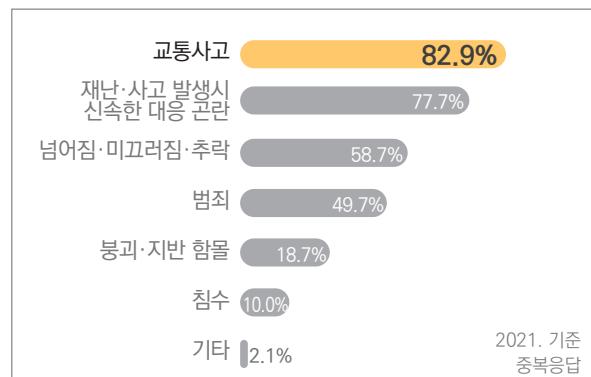
-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 총 25개의 자치구와 426개의 행정동, 467개의 법정동이 있으며, 서울시 전체 면적은 약 605.2km²로 대규모 도시
-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을 구분하며, 주요 산지에 둘러싸인 분지 지형의 도시

2-1-2. 도로

- 서울시 내 도로 면적 중 41.3%가 생활도로(이면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남보다 강북 지역이 높은 생활도로 비율 차지
- 생활도로에서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소는 교통사고, 재난사고 대응, 생활안전사고



[그림 4] 서울시 생활도로 연장 및 면적 1



[그림 5] 서울시 생활도로 중점 개선요소 1

1 서울연구원(2021), 서울시 생활도로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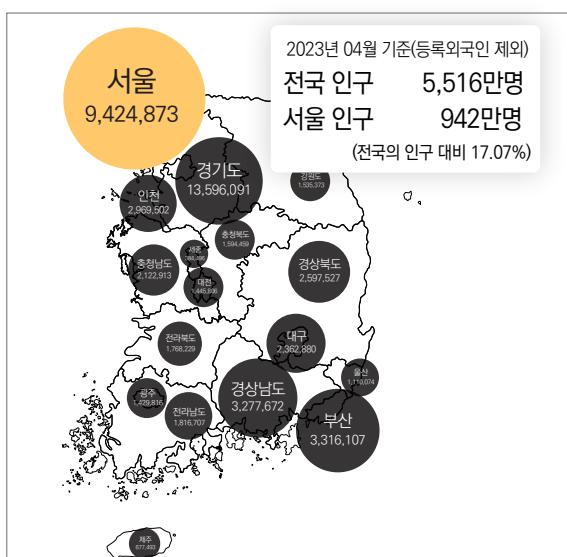
2-1-3. 인구

○ 전체 인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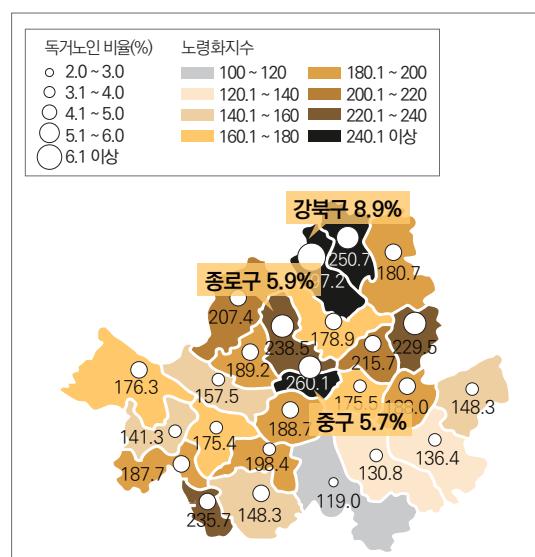
- 서울시 인구는 전국 인구 대비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북보다는 강남이 높은 인구 밀집도
- 출산율 저하 및 교외화 현상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구수 증가
 - 2013년 대비 2023년 전체 인구수 9.3% 감소, 가구수 10.1% 증가
- 저출산 및 평균수명 연장으로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 인구 증가
 - 고령인구 비율 17개 광역 지자체 중 10위

○ 고령인구

- 고령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166만 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17.9%에 해당되며, 2025년에 초고령화 사회 기준인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17개 광역지자체 중 10위)
- 서울시 노령화지수 및 독거노인 비율의 상위 10개 자치구 중 8개 이상이 강북지역
- 독거노인 비율은 서울시 전체 인구 대비 4.4%이며, 전체 고령 인구 대비 25.3% 차지



[그림 6] 전국 시·도 인구 현황 1



[그림 7] 노령화지수 및 독거노인 비율 2

1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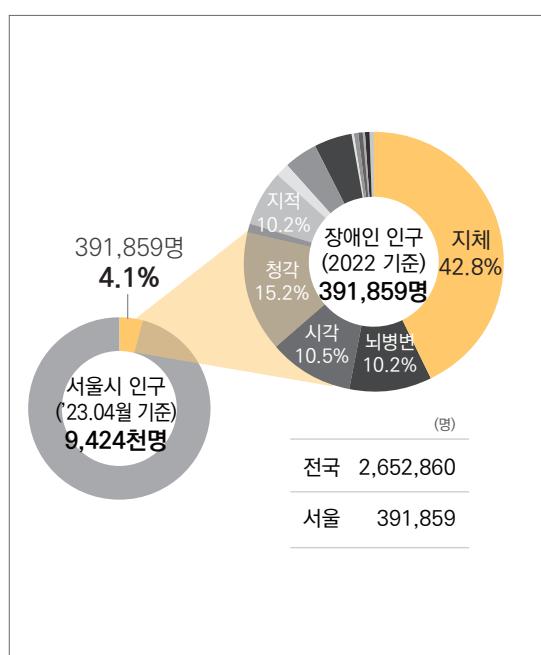
2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https://data.seoul.go.kr>

○ 장애인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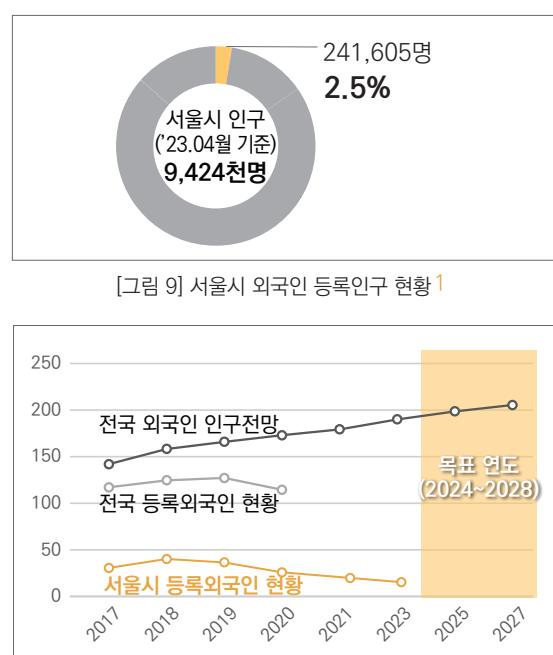
- 장애인 등록 인구는 2022년 기준 약 39만 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 대비 4.1% 차지
 - 장애인 유형 중 지체장애인이 42.8%, 청각장애인 15.2%, 시각장애인 10.5%
- 서울시 장애인 인구 중 60대 이상이 6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고령층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외국인 인구

- 등록 외국인 인구는 2023년 기준 24만 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 대비 2.5% 차지
- 2019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등록 외국인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포스트코로나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측
- 2023년 방한 외래 관광객(800,575명)이 전년 동월(96,768명) 대비 727.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며, 관광객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방한 외래객의 여행 중 방문 지역은 ‘서울(57.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는 22.1%, 부산은 46.4%



[그림 8] 서울시 장애인 인구 현황 ¹



[그림 10] 서울시 외국인 증감추이 ¹

¹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2-1-4. 교통

○ 교통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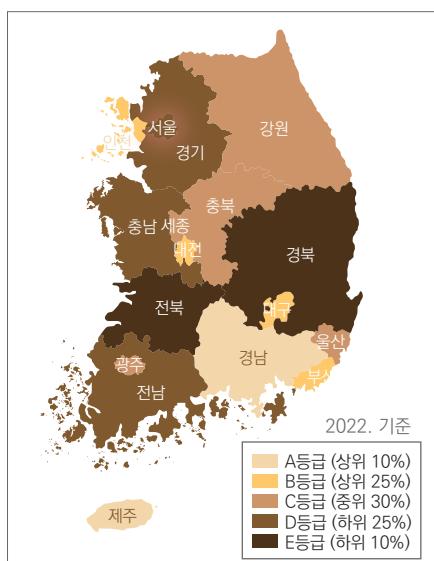
- 교통문화지수는 보행·교통안전 등 항목에 대한 지표로서, 서울시 교통문화지수는 D 등급으로 전국 하위 25%에 해당
-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대중교통 만족도 조사 결과, 도시철도, 버스, 여객자동차 순으로 만족도가 높음

○ 교통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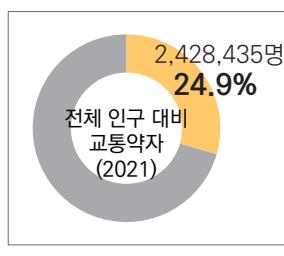
- 서울시 교통약자는 약 24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4.9% 차지
- 교통약자 중 고령자가 6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매년 교통약자의 비율 증가

○ 어린이 교통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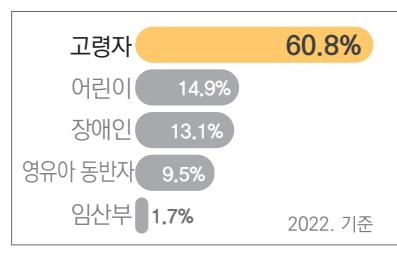
-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소폭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
-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사고율이 높은 자치구는 중구, 영등포구, 금천구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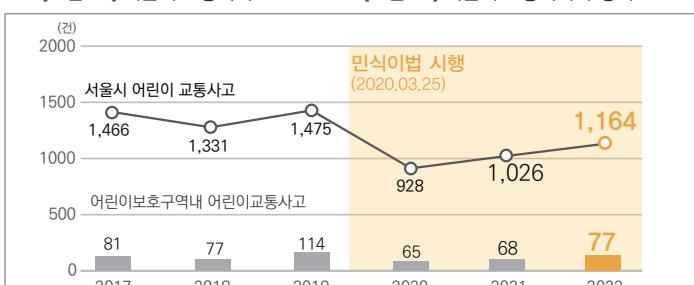
[그림 11] 시도별 교통문화지수 1



[그림 12] 서울시 교통약자 2



[그림 13] 서울시 교통약자 구성비 2



[그림 14] 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3

1 국토교통 통계누리, <https://stat.molit.go.kr>

2 서울특별시(2023), 제4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3 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https://taas.koroad.or.kr>

2-1-5. 사회

○ 사회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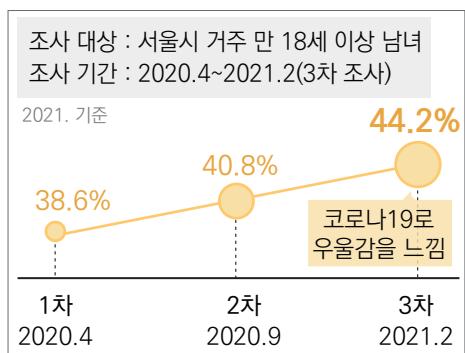
-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44.2%가 우울감을 느낀다고 응답
- 코로나19가 스트레스, 정서적 고갈 등 정신건강 측면에서 점차 부정적인 영향 제공

○ 디지털약자

- 디지털 사회 가속화로 고령자, 시각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 발생
-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은 장애인, 고령층 등이 일반 평균보다 낮은 경향
 - 계층별로는 60대 이상의 고령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69.9%로 가장 낮으며, 키오스크 조작이 어려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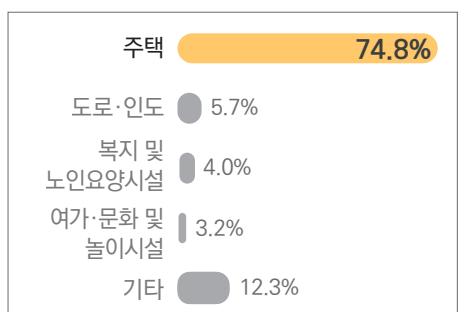
○ 고령자 낙상사고

- 고령자 낙상사고 중 74.8%는 주택에서 발생하며, 매년 낙상사고가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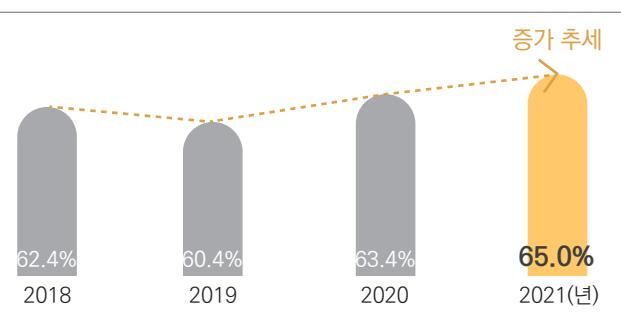


[그림 15]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민 우울감 경험률¹

[그림 16]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²



[그림 17] 고령자 낙상사고 발생장소³



[그림 18] 연도별 고령자 낙상사고 접수현황⁴

1 서울연구원(2020),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평가와 개선방안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3 주혜지, “고령자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이 ‘낙상사고’”, 한의신문, 2022. 08. 30, <https://www.akomnews.com>

4 한국소비자원(2022), 2021년 고령자 위해정보 동향 분석

2-2. 1차 기본계획

2-2-1. 1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목표 및 전략

- 2018년에 수립된 제1차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은 ‘모두 서로 존중하고 공유·공감·공존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목표 설정
 - 목표에 따라 생활편의, 안전, 공유, 공감의 4가지 추진전략 수립

목표	Seoul, BEST To U 모두 서로 존중하고 공유·공감·공존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전략	전략1. 생활편의 증진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유니버설디자인 가치 실현의 기본이 되는 도시의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정비
	전략2. 안전도시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구축 도시 이용자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전략3. 공유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활성화 공유·공감의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전략4. 공공 가치 혁신과 유니버설디자인 공감을 위한 기반 확립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 도입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시스템 구축

[표 4] 1차 기본계획 목표 및 전략

○ 추진과제 및 선도사업 분석

- 각 추진전략에 따른 46개 추진과제 및 선도사업, 시범대상지, 보행맵을 제시하여 다방면으로 계획했으나, 실행력 있는 방안 미흡

항목	개요	세부내용	분석결과
추진과제	각 전략에 따른 46개 추진과제	사업의 목적, 내용, 추진주체, 기간/예산, 사례사진 등 제시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5년간의 마스터플랜 부재
선도사업	각 분야·공간의 10개 선도사업	사업 개요, 내용, 진행일정, 추진주체, 기대효과 등 제시	사업 실행을 위한 추진 주체, 예산 계획의 부재
시범대상지	현황 이슈에 따른 4개 시범대상지 계획	대상지 현황분석 및 평가,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선정된 대상지에 한정되어 적은 파급효과
보행맵	4대문 안(종로구, 중구) 중심 보행성 평가	사용자 유형별 보행맵 제시	별도의 보행맵의 이미지·자료 미제공으로 활용성 저하

[표 5] 1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및 선도사업

2-2-2. 분석 결과

○ 내용적 측면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본 개념과 대상 등에 대한 설명 부재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나열형으로 사업 제시
- 각 선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배경 및 데이터 등의 산출 근거 부족
- 대부분 추진과제 및 선도사업이 공공영역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방안 부재

○ 논리적 측면

- 단순 나열식으로 추진과제를 전개하여 전체적인 단계별 중·장기적인 전략 부재
- 기본계획 목표연도인 5년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로드맵 부재
- 유니버설디자인 관리 및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계획 부재

2-2-3. 2차 기본계획 방향

○ 내용적 측면

- 시민 및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쉬운 기본계획 수립
- 서울시 추진주체 및 예산을 고려한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
- 공공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민간 영역으로의 확산 방안 검토

○ 논리적 측면

- 2024~2028년까지 5개년간 실행사업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체계적인 단계별 전략 수립
-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및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방안 제시

2-3. 유니버설디자인 실태조사

2-3-1. 서울시 계약 현황

○ 분석 개요

- 제1차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9년에서 2023년 4월까지 서울시에서 계약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현황을 다빈도 추출 방식으로 계약명을 추출하여 분석

구분	세부내용
기준년도	최근 5개년(2019~2023.04)
조사대상	서울시 용역 계약(공사, 물품 제외) 총 40,419건
검색요건	유니버설디자인, 접근, 보행, 무장애 등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16개 키워드 다빈도 추출
분석대상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계약 453건

[표 6] 서울시 계약 현황 분석 개요

○ 분석 결과

- 2019~2023년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전담 부서에서 시행한 계약은 22건으로 4.9% 밖에 되지 않아 서울시 자체 실행사업 부족
 - 계약명에서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보행, 무장애, 보호구역 순으로 나타났고, 빈도가 낮은 키워드는 외국인(다국어), 인지, 진입 순으로 전개
 - 그동안의 계약이 물리적 환경 개선이 집중되었고, 비물리적 영역의 사업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분석
-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파급력 높은 자체 사업을 강화하고, 외국인, 인지, 행정 서비스 등 비물리적인 분야로 다각화 필요

주관부서	계약 건수	비율	상위 키워드	하위 키워드
서울시 디자인정책담당관	22	4.9%	1. 보행	128건
서울시 타 실국, 사업소 등	169	37.2%	2. 무장애	67건
자치구	259	57.2%	3. 보호구역	62건
출자·출연기관 등	3	0.7%	4. 유니버설디자인	40건
총계	453	100.0%	5. 이동편의	33건

[표 7] 5개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계약 현황

[그림 19] 5개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계약 키워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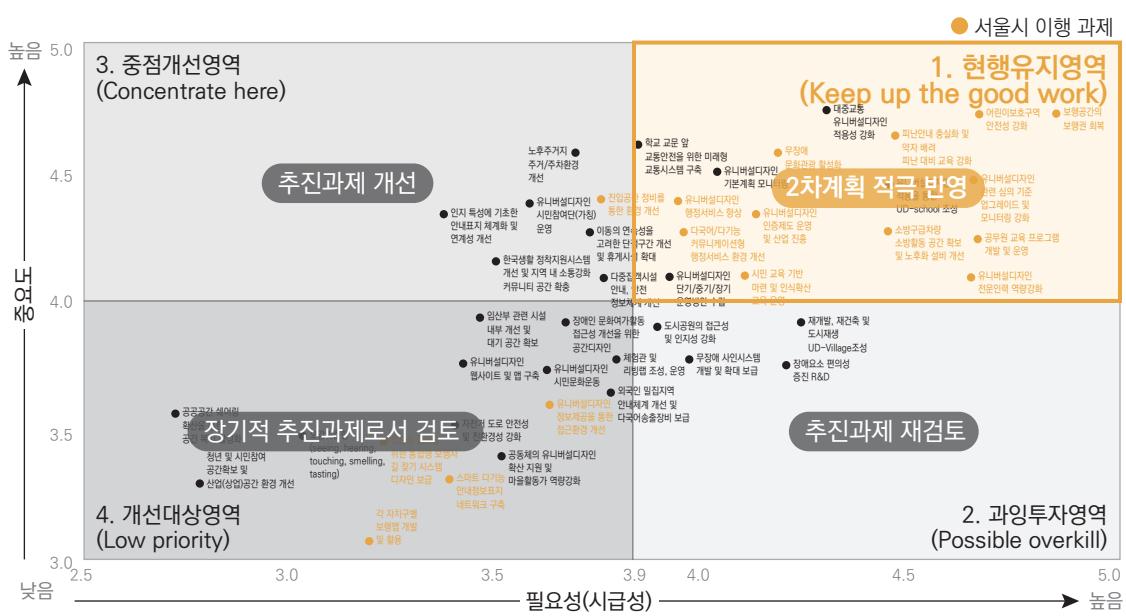
2-3-2. 1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 1차 기본계획 추진율

- 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과제와 연관성이 있는 서울시 계약은 22건으로, 46개 추진과제 중 47.8% 이행
- 추진과제 중 물리적인 환경 개선 사업은 12건, 비물리적 사업은 10건 추진
 - 비물리적 추진과제 중 조례 개정,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립, 교육 등
- 추진주체는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실행

○ 전문가 분석

- 1차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 평가를 통해 유지해야 할 영역과 불필요하게 과잉 투자된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IPA 분석 시행
 - 서울시 위원 및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4인이 1차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중요도 및 필요성(시급성)을 체크하여 2차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과제 도출
- IPA 분석 결과, 현행유지영역에 해당하는 추진과제는 17건이며, 그중 서울시에서 추진하지 않은 과제인 교통시설, 학교, 모니터링, 단계별 운영방안 등 5건 연계 적극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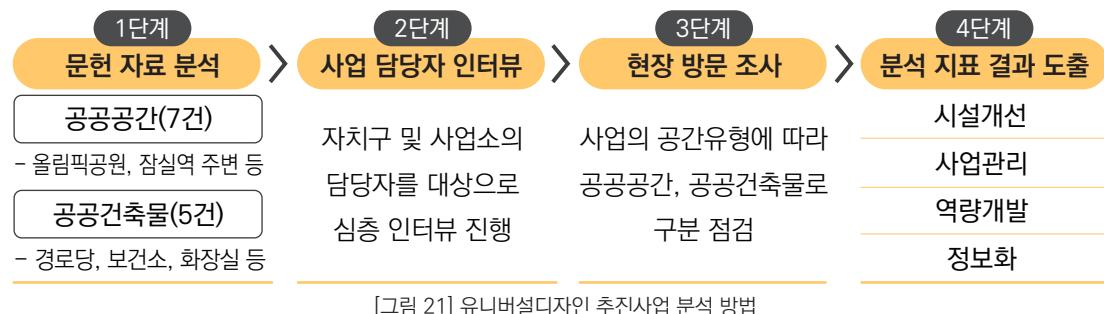


1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 특정 요소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의 평가를 통해 4분면을 나누는 전략적인 분석 방법

2-3-3.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사업

○ 분석 개요

- 2015~ 2022년간 서울시 및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추진한 유니버설디자인 개선사업을 대상으로 현장 답사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사업 전반의 개선방안 도출



○ 분석 결과

01 시설개선

- 서울시 공모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동절기 공사로 인해 어려움 발생
- 신규 디자인 개발에 따른 제작물 설치 시 유지보수 어려움 발생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장기 계획 마련 및 사업의 시행·관리 주체 명확하게 구분

02 사업관리

- 현재 추진 절차에 대한 관리는 담당 자치구 및 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우수
- 지속적으로 확산해야 하는 시범사업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기반 미확보
- 공공공간과 건축물로 일부 영역에 국한하여 사업 진행, 조례 기반의 다양한 분야로 다각화 필요

03 역량개발

- 자치구나 공모 기관의 컨설팅과 심의 절차에 낮은 관여도
- 실무자 입장에서 유니버설디자인 특화 사례에 대한 정보 필요
- 현재 공직자 교육은 기초 개념의 내용이라 실무용으로 한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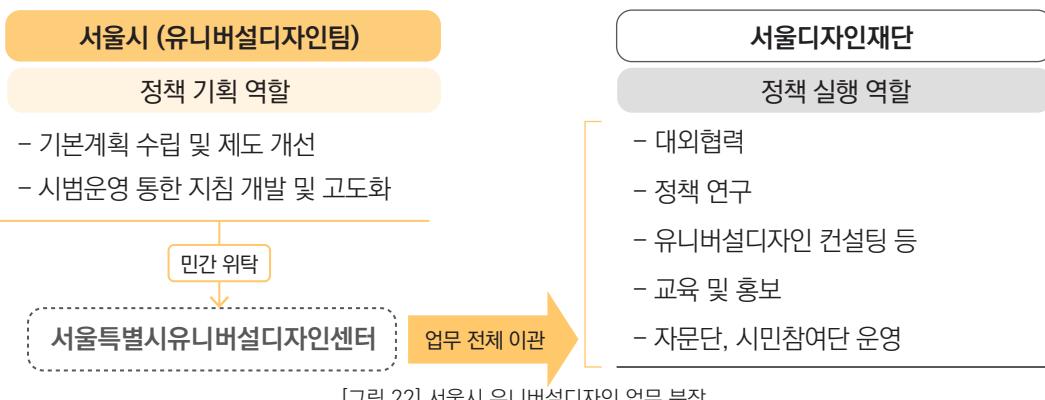
04 정보화

- 대부분 사업 추진 시 실무 협의 과정에서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정보 체계 구축 필요
- 새로운 유형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요, 다양한 유형의 자료 제공 필요

2-3-4. 추진체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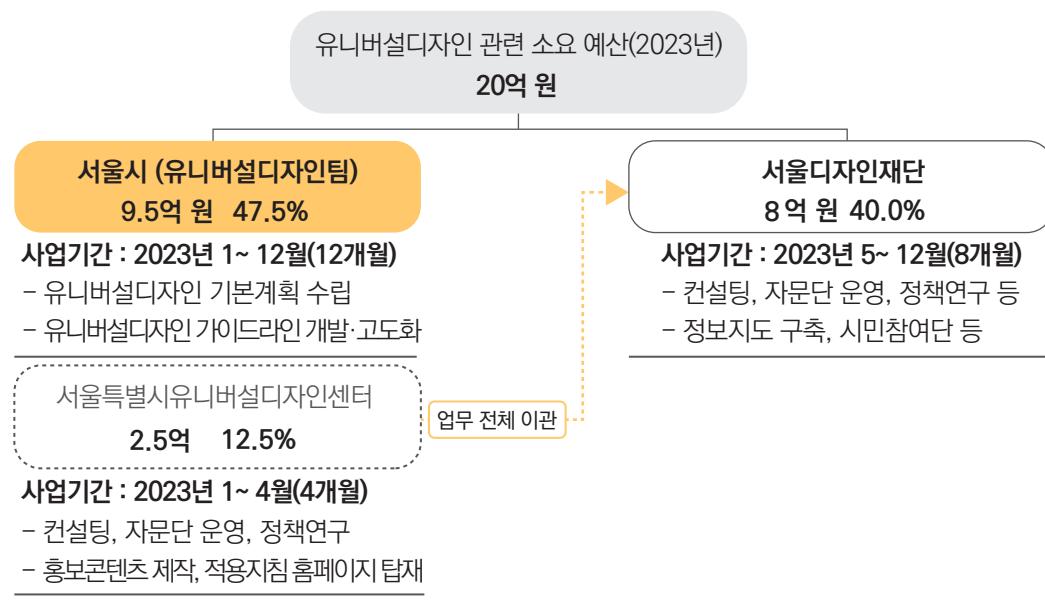
○ 추진주체

- 서울시의 기획과 서울디자인재단의 실행 역할로 이원화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이후 서울유니버설디자인 센터의 기능이 서울디자인재단으로 이관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전담부서와 서울디자인재단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기획·실행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이 필요



○ 추진예산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예산은 최근 5개년(2019~2023) 평균 20억 원이며, 평균 예산에서 상향 조정하여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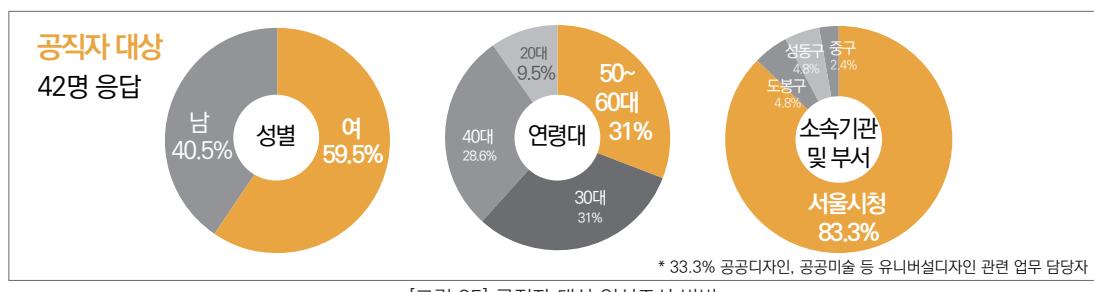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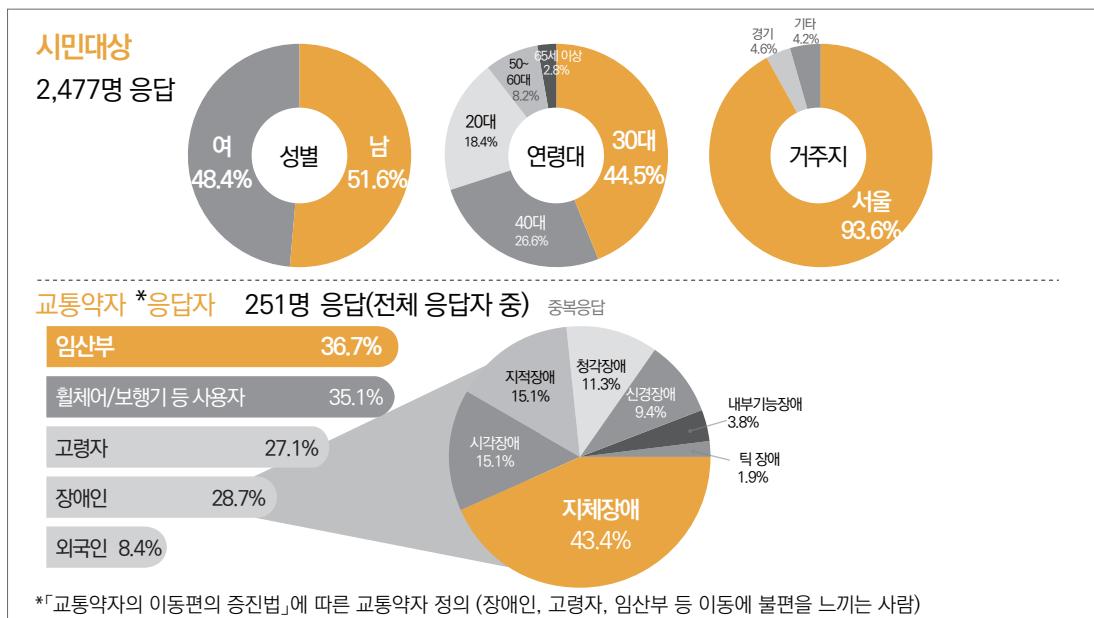
2-4. 인식조사

2-4-1. 조사 개요

-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시민과 공직자 각각 따로 조사하였으며, 시민은 2,477명, 공직자는 42명이 응답
- 시민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서울시로 통학, 통근 등을 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기 위하여 비거주 시민도 참여

2-4-2. 조사 방법

- 시민 대상 인식조사는 온·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했고, 공직자 대상 인식조사는 관내 온라인 조사로 시행



2-4-3. 시민 인식조사 결과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인식

- 배리어 프리보다 유니버설디자인 용어 인지율이 3.1% 더 낮으며, 33.4%는 유니버설디자인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
- 1차 기본계획의 유니버설디자인 인지율(22.9%)에 비해서 43.7% 상승
- 용어 인지 경로는 ‘SNS’가 41.9%로 가장 비율이 높으며, 대부분 온라인으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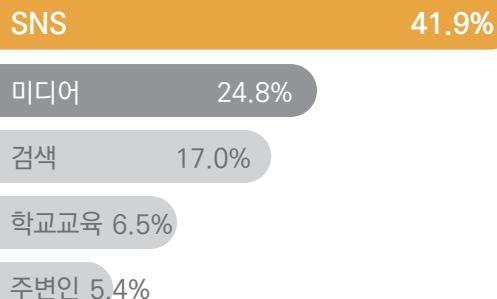
01 유니버설디자인 용어 인지

예 66.6% 아니오 33.4%

02 배리어 프리 용어 인지

예 69.7% 아니오 30.3%

03 용어 인지 경로



[그림 26]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인식 조사결과

○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 5년전과 비교했을 때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에서 58.4%가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고 응답
- 변화된 유형에서는 ‘공공공간(25.9%)’과 ‘공공건축물(25.4%)’이 가장 높았으며, 교통약자는 ‘공공건축물’이, 타지역 거주자는 ‘교통시설’이 가장 많이 변화했다고 응답

03 5년전과 비교한 서울시 환경 변화

훨씬 나아졌음 17.9%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음 58.4%

보통 16.8%

전혀 바뀐 점 없음 6.9%

04 변화된 유형(03번 긍정 응답자 중)

공공공간 25.9%

공공건축물 25.4%

교통시설 21.7%

공공시설물 12.2%

민간건축물 7.2%

교통약자 응답

- 1 공공건축물 (28.0%)
- 2 공공공간 (24.5%)
- 3 교통시설 (19.2%)

타지역 거주자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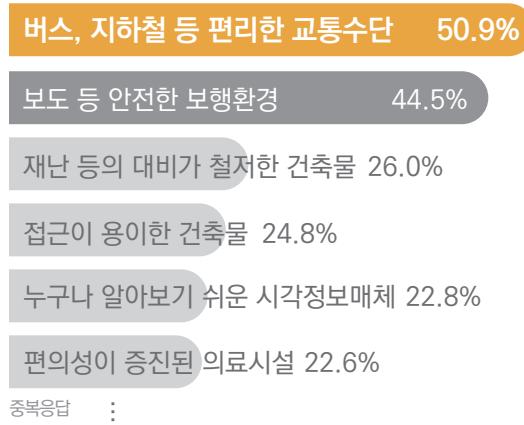
- 1 교통시설 (27.9%)
- 2 공공공간 (26.8%)
- 3 공공건축물 (26.2%)

[그림 27]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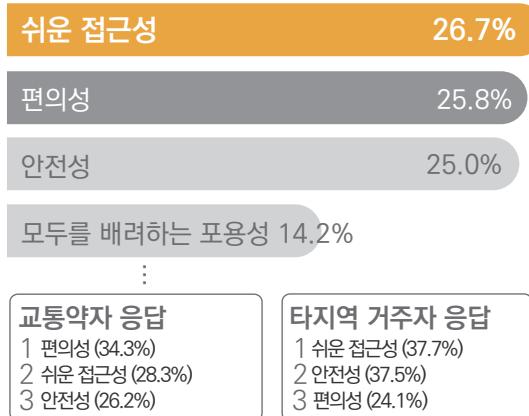
○ 유니버설디자인 필요성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시급한 유형은 ‘버스, 지하철 등 편리한 교통수단’이 50.9%이고, ‘보도 등 안전한 보행환경’이 44.5%의 비율을 차지
- 유니버설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쉬운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순으로 응답

05 적용이 시급한 유형



06 가장 중요한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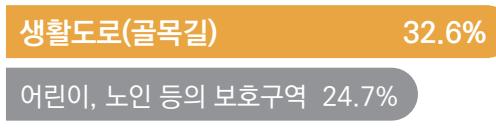


[그림 28] 유니버설디자인 필요성 조사결과

○ 공간별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 공간별 개선이 필요한 유형에서 보행환경은 ‘생활도로’와 ‘어린이, 노인 등의 보호구역’, 공원·광장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으로 응답
- 교통시설은 ‘지하철 환승구간’과 ‘버스, 택시 정류장’, 공공건축물은 ‘행정복지센터’와 ‘공공청사’로 응답

07 보행환경 내 개선 필요 유형



08 공원/광장 내 개선 필요 유형



09 교통시설 내 개선 필요 유형



10 공공건축물 내 개선 필요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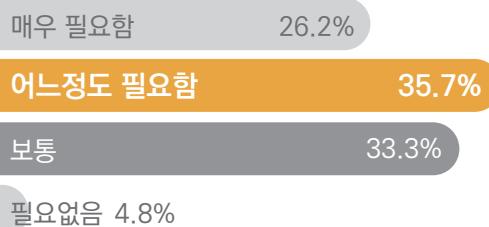
[그림 29] 공간별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조사결과

2-4-4. 공직자 인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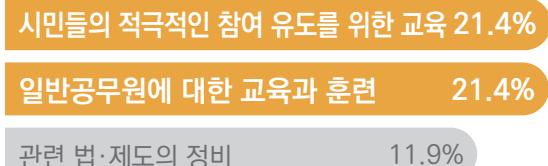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상 ‘조례 제정’ 및 ‘시민의 참여’와 ‘공무원 교육’,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

01 자치구 조례 제정 필요성



02 우선 필요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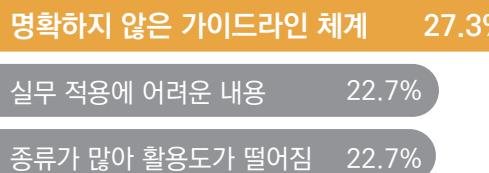


[그림 30]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조사결과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명확하지 않은 체계’에 27.3% 응답했으며, ‘활용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응답

03 가이드라인 문제점



04 가이드라인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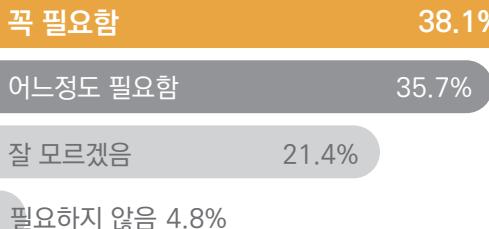


[그림 31]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조사결과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 조사 대상 공직자의 73.8%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 ‘교육프로그램 다양화(45.2%)’, ‘공무원 교육 의무화(42.9%)’가 필요하다고 응답

05 교육의 필요성



06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



[그림 32]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조사결과

2-5. 관련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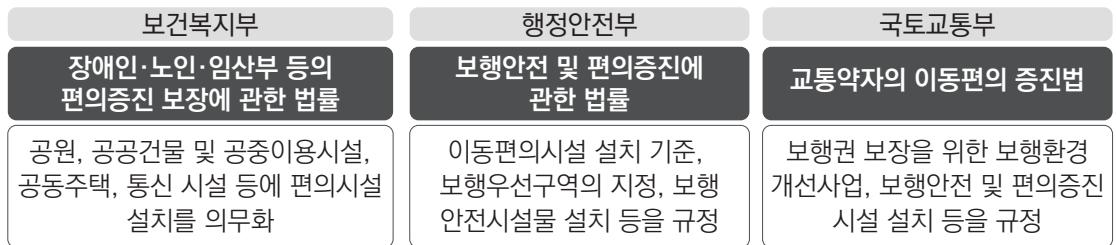
2-5-1. 법규 및 조례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 계류 중이며,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 기본법은 유니버설디자인의 확산을 위해 종주적인 역할을 하는 통합적인 기틀 마련

○ 관련 개별법

- 중앙부처별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편의증진, 보행안전 개선을 위한 법률 마련



[그림 3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

○ 서울시 및 자치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서 적용범위가 공공공간, 건축물, 시설물 등 물리적 영역에 한정 및 실행 동력 확보를 위한 자치구 조례 제정 확산 필요
- 서울시 자치구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률은 28.0%로, 25개 자치구 중 7곳만 제정

○ 타 지자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전국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률은 광역지자체 35.3%, 기초지자체 11.1%, 교육청 11.8%
- 대부분 지자체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비슷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법의 부재로 낮은 조례 제정률

○ 서울시 관련 조례

- 주거약자, 교통약자, 관광약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23년 교육청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위 확대

2-5-2. 위원회 운영

○ 운영 현황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 13조에 따라 건축, 도시공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기능 대행
- 심의 대상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며, 건축 및 도시공원위원회는 심의 시 점검표 제출을 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사전 컨설팅 후 심의를 받도록 규정

위원회명	심의 대상	심의 절차
건축위원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점검표 제출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점검표 제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도로, 버스터미널정류소, 교통시설	사전 컨설팅 후 심의

[표 8] 기능대행 위원회 심의대상 및 절차

○ 운영 한계점

01 주관분서에서 심의 과정 확인이 어려운 현황

- 유니버설디자인을 주관하는 담당부서에서 심의 시기 결과, 건수 모니터링 등 확인하기 어려운 과정

02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의 통합적인 관리 부족

- 실질적으로 대부분 사업 심의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위원 수 부족

03 유니버설디자인 개선 및 변경이 어려운 단계

- 위원회 심의는 절차상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현실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개선이 어려운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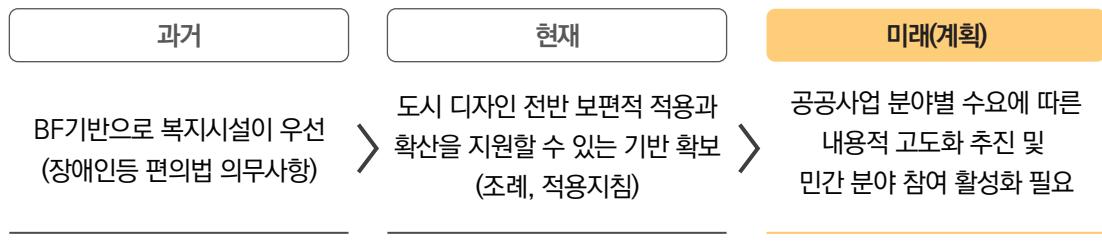
04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심의

- 현장 여건상 보도 평탄화, 보행 폭 확보 등이 불가능한 공간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심의가 다수

2-5-3. 가이드라인 체계

○ 가이드라인 현황

- 과거 배리어 프리(BF)기반의 복지시설 가이드라인 개발이 선행, 공간 중심으로 구성
- 사회 전반의 보편적인 적용과 확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장된 적용지침 개발이 필요하며, 향후 공공 사업 분야별 수요에 따라 내용적 고도화 추진



[그림 34]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동향

○ 관련 가이드라인 체계 분석

-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 있는 건축 및 교통,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상충되지 않는 분야를 검토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사용자 및 대상별로 고도화 필요
-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양적,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며, 조례 기반의 내용을 체계화하고 실무자의 현장 적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개발

유형	근거 조례	종류	분류 대상
유니버설디자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UD 적용지침(2022)	보도, 공원, 건축물, 공공주택
		유형별 가이드라인	보행환경 및 안내, 복지시설 24종, 시민편의공간(공중화장실, 수유실)
건축·교통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2015)	가로휴게형, 정원형, 공원형 등 6가지 유형별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 (2017)	보도, 차도, 교차로
공공디자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2017)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20)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각매체

[표 9]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 체계

2-6. 국내·외 사례

2-6-1. 국내 사례

○ 물리적 개선

- 휠체어 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접근성 완화, 차별 개선을 중심의 무장애 놀이터 조성
- 유아 동반 가족 및 장애인 등 모두를 고려하여 이용하기 편한 다목적 화장실 조성
- 공원 내 완만한 경사로 조성, 다양한 사용자 고려한 이중 손잡이 설치



[그림 35] 차별을 없앤 무장애 놀이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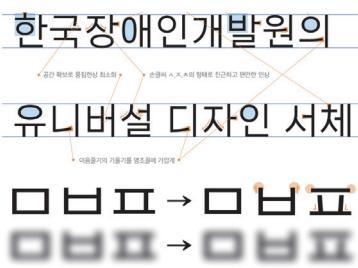
[그림 36] 공공시설 다목적 화장실 2



[그림 37] 접근성을 높인 공원 시설 3

○ 비물리적 개선

-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고령자나 노안, 저시력자 등 시력 약자들도 인지하기 쉽도록 가독성이 높은 유니버설디자인 서체 개발
- 시각적 인지 제고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색약자 컬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배색 가이드 개발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개선 및 공감을 위한 공직자 대상 현장체험교육 시행



[그림 38] 유니버설디자인 폰트 개발 4 [그림 39] 색약자를 위한 배색 가이드 개발 5



[그림 40] 찾아가는 현장체험교육 6

1 박미소, “0.04%의 행운, 무장애 놀이터”, 시사IN, 2023.05.09., <https://www.sisain.co.kr>

2 홍석형, “제주도, 2020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완료”, 제주도민일보, 2020.11.15., <http://www.jejudomin.co.kr>

3 송영찬, “장애인 문턱 없애는 관광지…휠체어 타고 해발 1000m 산 간다”, 한국경제, 2023.04.25., <https://www.hankyung.com>

4 유니버설디자인 공감주간, “유니버설디자인 서체”, <https://www.koddi.or.kr>

5 박아름, “KCC, 색약자 위한 안전 컬러 디자인 가이드 마련”, 디자인정글, 2021.11.26., <https://www.jungle.co.kr>

6 강정훈, “용인시, 공직자 대상 체험 겸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국제뉴스, 2021.06.02., <https://www.gukjenews.com>

2-6-2. 국외 사례

○ 법령 및 제도

- 일본은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을 제정하고, 하트빌딩법과 배리어프리법의 이원화된 법체계를 하나로 통합
- 유니버설디자인 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법규정을 제정하는 추세
- 미국과 독일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보편적인 환경 조성을 체계화
- 프랑스는 무장애 관광 인증마크 시행을 시행하여 4가지 장애 유형 접근 가능 정보 표시



[그림 41] 프랑스 무장애 관광 인증 1

○ 디자인 사업

-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비위생적이고 불편한 공중화장실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사용자를 고려하여 설계
- 독일은 무장애 관광으로서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 구축, 모두를 위한 문화접근성 제고



[그림 42] 일본 더 도쿄 토이렛 프로젝트 2



[그림 43] 독일 모두를 위한 여행 프로젝트 3

1 Aintourisme, “La marque Tourisme & Handicap dans l’Ain”, <https://www.ain-tourisme.com>

2 VMSPACE, “모두를 위한 공중화장실: 더 도쿄 토이릿”, <https://vmspace.com>

3 한국장애인개발원, “독일국립관광청, 배리어프리 여행안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다”, <https://koddi.or.kr>

2-7. 종합소결

2-7-1. 일반 현황

○ 입지 및 지형

- 대한민국의 수도로 25개의 자치구로 구분, 주요 산지에 둘러싸인 분지 지형 도시

○ 도로

- 서울시 전체 도로 중 생활도로 비율이 41.3%를 차지하며, 교통사고, 재난사고 대응, 생활안전사고 순으로 개선 필요

○ 인구

- 서울시 전체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가구수는 증가하는 추세
- 유소년 인구는 감소 추세, 고령자, 장애인 및 외국인 인구는 점차 증가

○ 교통

- 서울시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24.9%를 차지하며, 그 중 고령자가 60.8%
-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가 소폭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 추세

○ 사회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감, 스트레스 등 시민 정신건강 악화
- 디지털 사회 가속화로 디지털 소외계층이 발생하고, 고령자 낙상사고가 점점 증가 추세

계획
방향

- 보행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사고 및 재난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
-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이용자를 배려한 접근하기 쉬운 환경 조성
-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시설 및 환경 구축
- 디지털약자 배려, 사회적 우울감 해소 및 낙상사고 예방 방안 모색

2-7-2. 1차 기본계획 분석

- 서울시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나열형으로 사업 제시, 선도사업의 산출근거 부족
- 5년간의 실행력 있는 계획과 구체적인 로드맵 및 실행방안 부재

계획
방향

- 현실성 및 실행성을 고려한 사업 로드맵 제시 및 민간 영역 확산 방안 마련

2-7-3. 추진사업 분석

- 물리적인 개선 사업을 위주로 시행, 비물리적인 사업 부족
- 사업은 공공영역에 국한되어 있고, 고도화된 유니버설디자인 특화사례 및 정보 부족

계획
방향

- 유니버설디자인 우수 사례집 발굴 및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2-7-4. 인식조사

- 교통시설 관련 개선의 응답이 가장 높으며, 쉬운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사업이 필요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응답

계획
방향

- 포용적인 접근 및 교통시설 개선, 공직자 교육 고도화

2-7-5. 관련 제도 분석

- 조례는 공공 및 물리적으로 한정된 적용범위의 확대 및 자치구 조례 제정 유도방안 필요
- 위원회는 통합적 관리 부족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심의 필요, 가이드라인은 다양화되는 수요에 따라 양적, 질적으로 확대 필요

계획
방향

- 실행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체계 구축

2-7-6. 국내·외 사례 분석

- 단순한 장애 극복 등의 물리적 개선에서 벗어나 비물리적인 개선으로 확대 추세
- 일원화된 법체계 및 사회 실현을 위한 통합지침 운영, 생활 전반에 확대되어 문화·관광까지 적용

계획
방향

- 비물리적인 사업 확대 및 차별 없는 문화·관광 적용 확대

제3장 전략방향 설정

3-1. 기본방향	34
3-2. 비전 및 목표	38
3-3. 추진전략	39

제3장 전략방향 설정

3-1. 기본방향

3-1-1. 주요시책 연계

- 서울시 민선8기 정책과 도시 전체 비전을 제시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디자인서울 2.0의 목표와 방향을 검토하고, 유니버설디자인과 연계가능한 요소 도출
- 민선8기 정책에서 약자 배려, 지속가능 스마트도시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보행 편의, 미래교통, 디자인서울2.0에서 모두, 포용의 요소를 기본방향 설정 반영

주요시책	비전	목표 및 원칙	연계 요소
민선8기 정책	동행·매력특별시 서울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약자 배려2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3 세계 5위 경쟁력 갖춘 도시4 세계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약자 배려, 지속가능 스마트도시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어디서나누릴 수 있는 “삶의 질” - 걸어서 누리는 다양한 일상, ‘보행일상권 조성’2 서울의 성장 견인 “도시경쟁력” - 기술발전에 선제적 대응,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3 대전환시대미래 서울의 “가치와 방향”	보행 편의, 미래교통
디자인서울 2.0	소프트서울의 지속+ 액티브서울의 디지향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서울다움에 자부심과 즐거움을 느끼는 ‘공감 디자인’2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 디자인’3 시민과 기업이 함께 만들고 공헌하는 ‘공헌 디자인’4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회복 디자인’5 환경·경제·교육 생태계가 ‘지속가능한 디자인’	모두, 포용

[표 10] 주요시책 연계

3-1-2.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

○ 기본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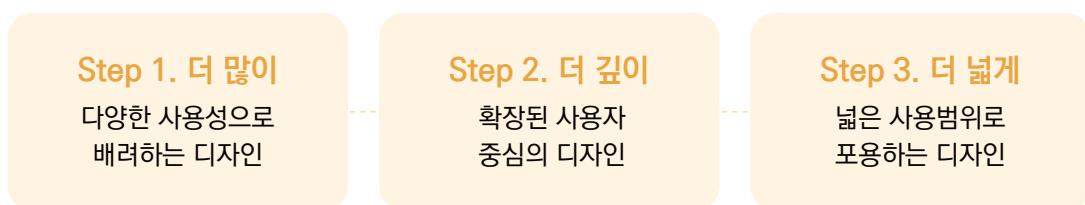
- 비물리적 요소로 유니버설디자인 패러다임 변화
 - 기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접근·이동 환경 개선의 물리적인 차원에서 진행
 - 물리적인 접근과 더불어 비물리적인 요소까지 고려하기 위해 정보 접근성 및 사용성을 보편화하는 인지적인 차원에서 유니버설디자인 패러다임 변화
-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정책목표 설정
 -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2.0은 인지를 중심으로 심리적 환경을 고려한 정보 제공 및 사용 다각화
 -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1.0은 편의 중심, 2.0은 인지 중심, 3.0은 초세대 시민을 포함하여 인식 중심으로 최종적인 유니버설디자인 가치를 구현하는 목표 설정

	대상	지향점	세부 내용
SEOUL UD 1.0 UD도입기 Hello UD 1차 기본계획 (2018~2023년)	사회적 약자 중심에서	편의 물리적 환경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접근·이동·보행 환경 개선
SEOUL UD 2.0 UD고도화 High UD 2차 기본계획 (2024~2028년)	사회적 포용 계층으로	인지 심리적 환경	유니버설디자인 공유 정보 제공·사용의 다각화
SEOUL UD 3.0 UD확산 Hub UD 3차 기본계획 (2029~2033년)	서울기반형 초세대 시민까지	인식 사회적 환경	유니버설디자인 가치 구현 유니버설디자인 시민의식 확산

[그림 44] 유니버설디자인 정책목표

○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2.0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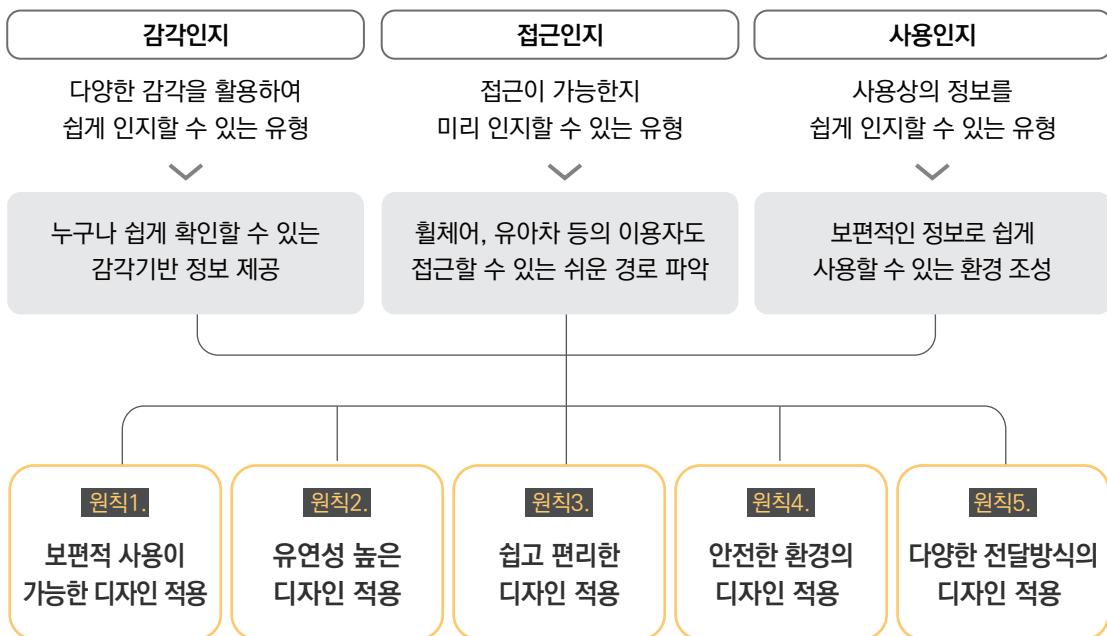
-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2.0 목표인 인지는 대상지를 파악·접근·사용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처리 과정에 해당
- 물리적 환경을 넘어 정보를 통한 비물리적, 심리적 환경까지 고려하여 1차 계획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그림 45]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2.0 전략

○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2.0 5원칙

-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2.0 목표에 따라 3가지 인지 유형을 정립하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를 기반으로 5원칙 설정



[그림 46]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2.0 5원칙

○ 추진방향 설정

- 현황조사 및 분석과 서울시 주요 시책을 반영하여 제2차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추진방향 설정
- 물리적인 환경 개선 수준을 넘어 사용자 인지적·심리적 안정감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



[그림 47] 유니버설디자인 추진방향 설정

3-2. 비전 및 목표



[그림 48] 제2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비전 및 목표

추진목표

사용자의 인지적·심리적 안정감 구현

추진방향

약자 배려·포용 정책 확산

차별없는 문화도시 실현

선도적 스마트도시 구현

지속가능한 확산방안 마련

효율적 실행·관리체계 구축

추진전략

추진전략1.

친근한 UD

매일 만나는 일상 생활의
포용적 디자인

일상

포용

추진전략2.

즐거운 UD

활기차고 즐거운
문화 혁신형 디자인

문화

혁신

추진전략3.

편리한 UD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배려형 디자인

다양성

배려

추진전략4.

나누는 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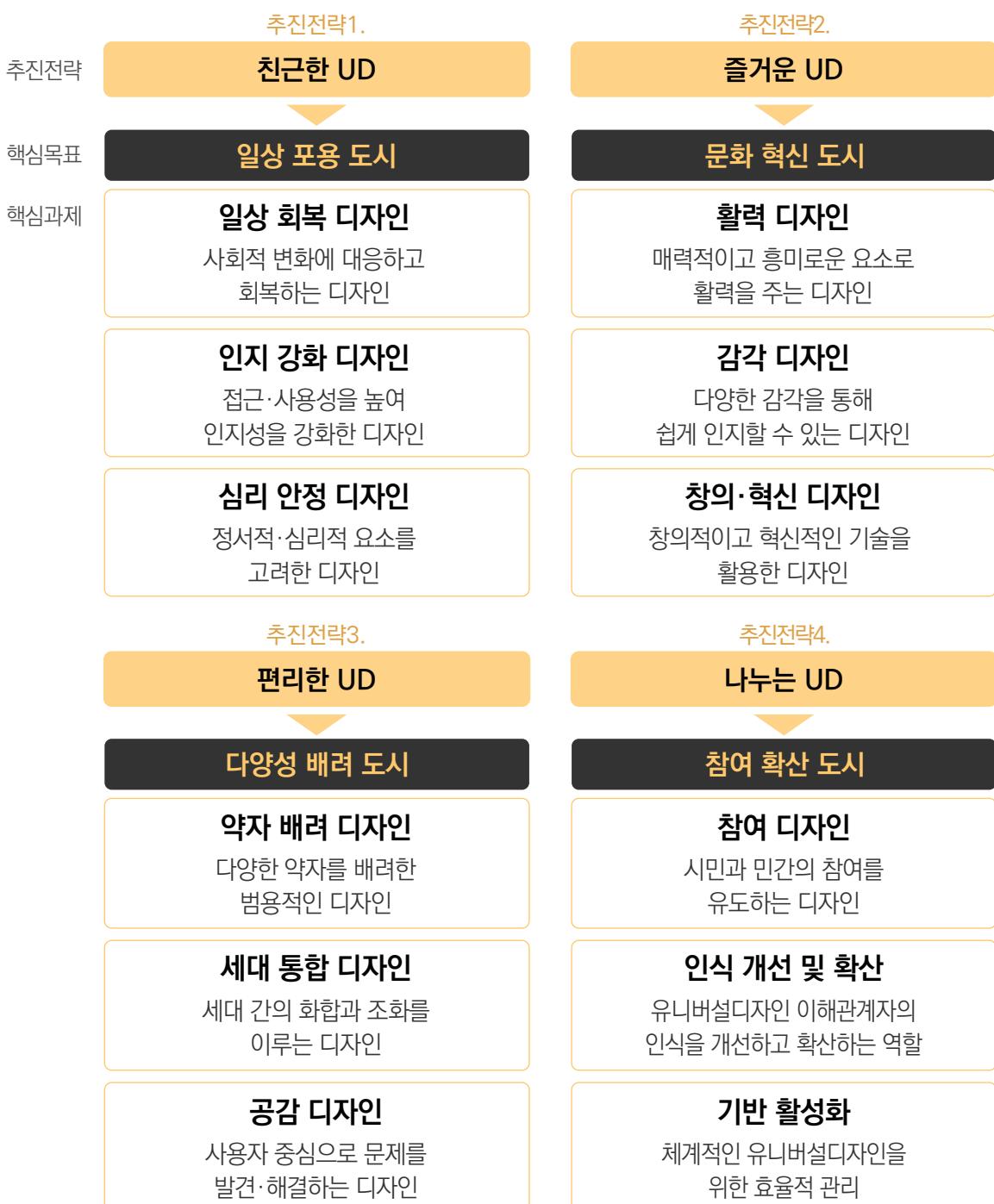
시민·공직자의 참여로
완성되는 확산형 디자인

참여

확산

3-3. 추진전략

- 추진과제 도출을 위한 추진전략에 따른 핵심 목표 및 핵심 과제 설정
- 유니버설디자인의 확산을 위해 일상,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 물리적인 개선과 더불어 비물리적인 인지, 심리를 고려하여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 실현



[그림 49] 유니버설디자인 정책목표

제4장 전략별 추진과제

4-1. 추진과제 개요	42
4-2. 선도사업	44
4-3. 추진과제	64
4-4. 실행전략	90

제4장 전략별 추진과제

4-1. 추진과제 개요

4-1-1. 추진과제 도출

- 서울시 일반 현황, 1차 기본계획 분석,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 이내에 실행할 수 있는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
- 자치구 및 출자·출연기관 등 서울시 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선도적인 과제 도출

추진전략	추진과제	연계방안	실행단계
친근한 UD	교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단기
	이용이 편리한 심리 안정 공공의료시설 개선		단기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인지 강화형 학교 통학로 구축	1차 기본계획	중기
	모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활력 있는 공개공지 개선		중기
	모두를 위한 다감각 인지향상 스마트 안내디자인	1차 기본계획	장기
즐거운 UD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서울산 유니버설디자인 특화	디자인서울2.0	단기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서울형 관광안내센터 개선		단기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공공한옥시설 개선		중기
	다감각을 활용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전시공간		중기
편리한 UD	전 세대를 포용하는 초세대 놀이공간 조성	디자인서울2.0	장기
	디지털약자를 위한 키오스크 구성 가이드라인 개발		단기
	보행약자를 위한 인지하기 쉬운 점자블록 개선		단기
	재난약자를 위한 사고 대응형 생활도로 개선		중기
	주거약자를 배려한 노후공공주택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1차 기본계획	장기
나누는 UD	게임으로 만드는 학교 UD맵 및 교육 고도화	1차 기본계획	단기
	실무용 유니버설디자인 사례집 제작 및 DB화		중기
	실무자 교육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디지털 환경 구축		중기
	체험·체감형 유니버설디자인 전시		장기

[표 11] 전략별 추진과제

4-1-2. 선도사업 선정

○ 현실성 있는 선정 기준 수립

- 도출된 18개의 추진과제 중 실행 가능성 및 필요성과 시민 체감도가 높으며, 유관계획 및 시책과 연관된 사업을 우선하여 선도사업으로 선정



[그림 50] 선도사업 선정

4-2. 선도사업

4-2-1. 교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전략1

○ 배경

- 서울시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 대비 2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데에 반해 교통약자 수는 연평균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서울시 관내 교통시설의 설치율은 법적 기준을 만족하지만, 시민이 느끼는 만족도는 전국 대상 평균보다 더 낮은 결과(서울시 65점, 전국 68점)
- 교통시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심의 점검표 부재

○ 필요성

-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교통시설 필요
- 교통약자의 접근·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한 교통시설 개선 및 다양한 사용자 관점에서 교통시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준 필요
- 교통시설 및 환경적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유니버설디자인 심의 점검표로 활용할 교통시설 지침 필요



[그림 51] 선도사업1 필요성

○ 기본방향

-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환경 및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 구축
-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교통약자의 심리적인 요인 고려

○ 세부 내용

01 연차별 교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만족도가 낮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버스 관련 시설을 단기 실행방안으로 우선 개발
-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버스(일반/저상), 버스정류장, 안내시설 및 주변 연계시설 등
- 만족도가 높은 도시철도 및 별도 협의가 필요한 여객자동차는 2차, 3차년도(2025~2026년)에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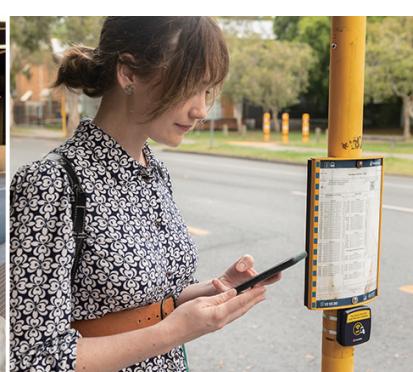
[그림 52] 교통시설 만족도 및 연차별 수립 계획

02 교통약자 및 사용자 관점의 디자인 기준 수립

- 버스 이용에 편의를 더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한 쉬운 정차 버튼, NFC를 활용한 안내시설 등 설치 권장
- 버스정보시스템(BIS)의 직관적인 아이콘 및 색채 표기 원칙 기준과 가독성을 고려한 다국어 표기 기준 정립
- 안내 체계의 시인성을 높이는 색채, 최소 서체 크기 등 인지하기 쉬운 기준 수립



[그림 53] 교통약자를 배려한 버스²



[그림 54] NFC활용 안내시설³

1 서울특별시(2023), 제4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 Roads&Infrastructure magazine, “Australian first trial aiming to improve bus accessibility”, <https://roadsonline.com.au>

3 Dusty Miller–Translink, “Queensland travel made easier with on-the-spot access to bus information”, intelligenttransport, 2023.06.23., <https://www.intelligenttranspor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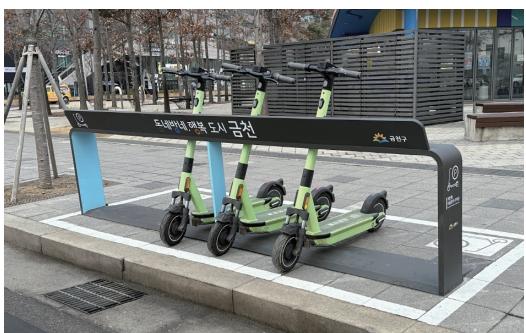
03 교통시설과 연계 가능한 시설 가이드라인 구성

- 개인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자전거·킥보드 거치공간의 연계로 교통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 보행공간에 방해되지 않고 교통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동선 설계 및 설치 방법 등

가이드라인 마련



[그림 55] 보행동선을 배려한 자전거 거치공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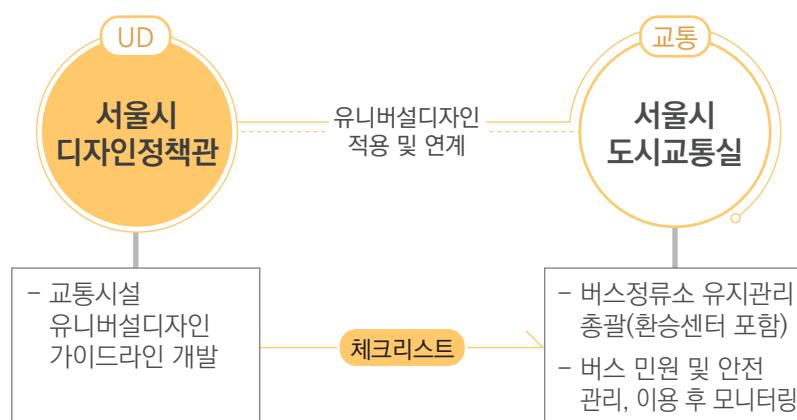


[그림 56] 보도에 설치된 킥보드 거치공간 2

○ 실행방안

01 교통 관련 부서 사업에 가이드라인 우선 적용 권장

- 교통 관련 부서에서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체크리스트 제공
-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교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을 시행하고, 버스 이용 후 평가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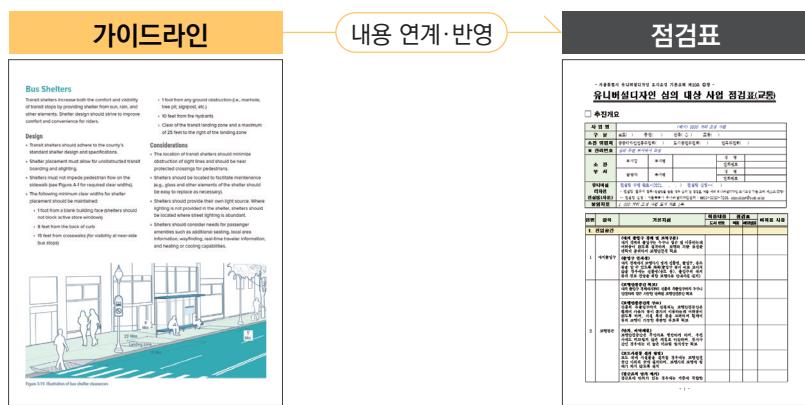
[그림 57] 가이드라인 활용 방안

1 mos.ru, “Bicycle renting: How to use Moscow’s bike-share programme”, 2017.07.22., <https://www.mos.ru/en>

2 신대현, “금천구, 전동킥보드 전용 거치대 7곳 설치”, 시정일보, 2023.01.11., <http://www.sijung.co.kr>

02 유니버설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 점검표 연계

-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심의 대상 사업 점검표에 연계·반영하여 교통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극 적용 유도
- 교통 관련 사업 심의 시 점검표를 작성하여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에 제출



[그림 58] 교통시설 가이드라인 및 점검표 예시

○ 추진계획 및 예산

- 주관부서 :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가이드라인 기획 및 발주, 심의 점검표 개발
- 협력부서 : 서울시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사업 개발 및 시범설치, 모니터링 및 이용 후 평가
- 추진기간 : 단기적 방안(2024년), 연차별 지속 추진
- 추진예산 : 총 200,000천원

추진사항	2024	2025	2026	공종	규모	공사비(천원)
버스 UD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제작(1개년)	-	200,000
도시철도 UD 가이드라인						
여객자동차 UD 가이드라인				총계		200,000

[표 12] 선도사업1 추진계획

[표 13] 선도사업1 추진예산(안)

4-2-2.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서울산 유니버설디자인 특화 추진전략2

○ 배경

- 서울시는 2012년부터 총 69.8km의 무장애 숲길을 조성했으나, 급격한 경사도와 진입 어려움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
- 단순한 접근성을 높이는 물리적 개선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편의 및 안내시설이 부족한 문제점 존재
-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및 정서적 고갈을 느끼는 시민이 조사 대상자의 50%(2021년 기준)에 육박하며, 사용자의 심리적·정서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시설 미흡

○ 필요성

- 단순한 접근성을 넘어 접근 및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고, 무장애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필요
- 물리적 접근에서 나아가 이용 편의 및 서비스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누구나 인지하기 쉬운 안내시설 체계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약자가 느끼는 정서적 고갈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서울산의 특성을 활용하여 정서적 치유가 가능한 공간 조성 필요



[그림 59] 선도사업2 필요성

○ 기본방향

- 서울산 내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적인 치유공간이 더해진 서울산 디자인 개발 및 보급
-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경계없는 문화관광 조성 및 쉬운 접근을 위한 사전정보 제공

○ 세부 내용

01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한 시설 및 서비스 제공

- 서울산 진입부에 시인성을 높이는 안내시설물 설치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트레일을 설치하여 서울산 코스를 따라 산책이 가능하도록 계획
-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진입부에 전동휠체어 및 유아차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곳곳에 전동보장구 충전소 등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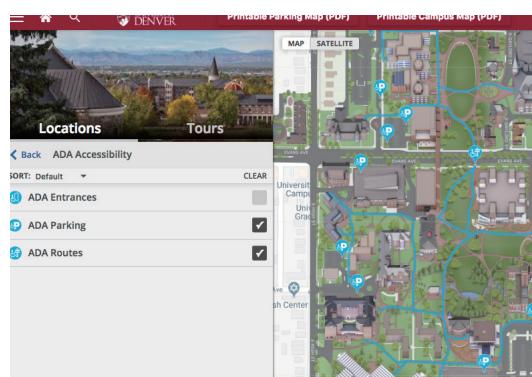


[그림 60] 연속적으로 점자가 표기된 산책로 1

[그림 61] 진입부 접근성 강화(편의용품 대여 서비스)2

02 유니버설디자인 정보 서비스 개발

- 진입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QR코드로 전자지도와 연결되도록 인프라 구축
- 보행 난이도를 5단계로 세분화하여 바닥 경사도를 시각화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직관적인 정보 제공
-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이용 후 평가(POE) 진행



[그림 62] QR코드로 전자지도 접속 3



[그림 63] 이동 난이도별 구분 4



1 SASAKI, "Curbed Commends Watertown Braille Trail", 2016.10.18., <https://www.sasak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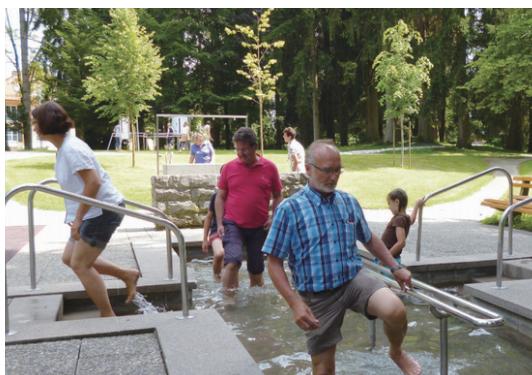
2 Roads&Infrastructure magazine, "Australian first trial aiming to improve bus accessibility", <https://roadsonline.com.au>

3 Lucas Brewer, "Digital Maps & Accessibility", CONCEPT3D, 2019.02.12., <https://concept3d.com>

4 서귀포시 블로그, "산책하기 좋은 사려니숲에 더욱 편한 무장애나눔길이 생겼어요!!", 2020.09.21., <https://blog.naver.com/seogwipo-si>

03 다감각을 자극하는 포용적 치유공간 조성

- 서울산의 자연 요소를 활용하여 접근하기 쉬운 치유공간 조성
- 촉각 및 청각 등 다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적용하여 정서적인 치유 효과 유도
- 안전한 이용을 위해 고령자 및 보행약자의 낙상사고 방지용 핸드레일 설치



[그림 64] 감각 자극 물치유공간 1



[그림 65] 치유 기반 명상공간 2

○ 실행방안

01 사업 확산용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사업 시행 내용을 가이드북으로 제작하여 자치구 및 출자·출연 기관까지 사업을 확산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배포

58

3.8 Design Standards
(Photo: City of Coeur d'Alene 2011 p.41)

- Provide a maintenance yard that meets of standards with adjacent storage space to accommodate equipment for maintenance of structures.
- Provide a storage room to contain equipment and materials used to support park operations.
- Provide ample natural lighting.
- Provide an efficient HVAC system.
- Provide accessible entrances and drinking fountains near the building entrances.
- Provide security lighting at or nearby the building.
- Provide directional signage from the street to the main entrance.

Maintenance Buildings/Yards
Same requirements as above.

- Provide space in the maintenance building to accommodate maintenance vehicle(s), maintenance tools, supplies and materials & bedding and maintenance materials.
- Provide a secure gate and fencing around the perimeter of all maintenance yards.

Service Infrastructure

- Provide a heavier drinking fountain for people of varying heights and those who have trouble bending, located adjacent to the community centre entrances.

3.8 Shading & Shade Structures

3.8.1 Definitions

- A hard structure (permanent or temporary, or a natural element) that provides relief from both natural and artificial elements present in the park.
- Pergola: A semi-sheltered area with trellis overhead for shade along promenades, paths, and plazas.
- Covered Walkways: An underbrace sheltered path to link all blocks to the car park, transport points and other major activity nodes and amenities.

3.8.2 Objectives

- To provide relief from both natural and artificial elements present in the park. Also, to provide a gathering space for a group of people and to provide a comfortable resting place.

Planning Norms

- Provide shade at shaded areas, paths, trails, seating points and for surprise spots.
- Locate shade to promote outdoor activities and leisure & increase social interaction.
- Use various types of shade providing elements such as temporary built structures, softscape elements such as trees with large canopies.
- Provide shade in volumes with steel posts and rigid metal roofing or shade fab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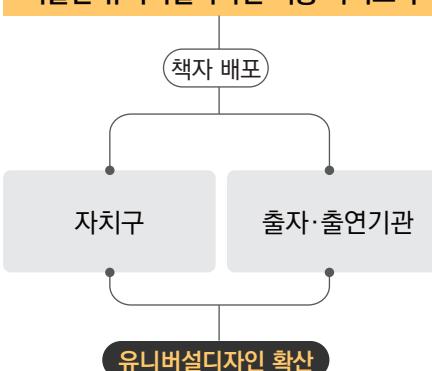
3.8.4 Design Standards
(Photo: City of Coeur d'Alene 2011 p.41)

- i. Provide continuous shade for 80% of primary walkways based on a minimum 1.8m width.
- ii. Provide continuous shade for 80% of secondary walkways based on a minimum 1.8m width.
- iii. Provide a minimum i. number of shaded net areas for every 500 linear meters of primary walking and for every 1,000 linear meters of secondary walking.
- iv. Provide a minimum of 10% shade coverage for play structures.
- v. Provide a minimum of 40% shade for informal play areas.
- vi. Provide a minimum of 40% shade for gathering areas and minimum 40% shade for all informal gathering areas.
- vii. Locate shade to activity areas or to quiet places with nice views.
- For pergolas designed as space for sitting and viewing, shade should be located off the main walkway.
- Orient pergolas east-west so that horizontal members provide maximum shade.
- Locate shade structures in locations where they are needed for shade and privacy.
- Select the type and size of structural members or canopies depending on the plant species.
- Provide sufficient planting area for creepers.
- Ensure adequate provisions for weather protection.
- Simple design and construction details are encouraged.

Fig 3.8.1 Gazebo in Liberty Park, Salt Lake, Utah
Fig 3.8.2 Beach swing along walkway
Fig 3.8.3 Pergola in the park, Coeur d'Alene, Idaho

45

서울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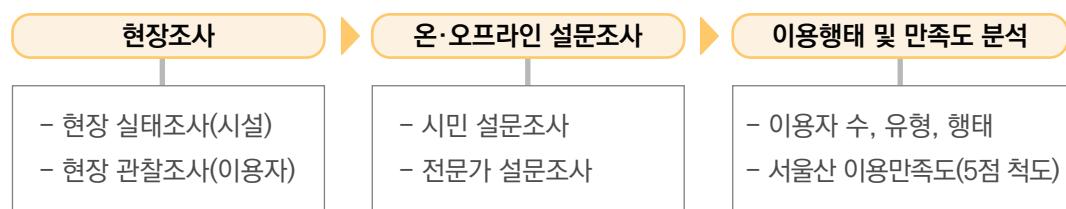
[그림 66] 가이드라인 예시 및 활용 방안

1 박연성, “[기획연재] ‘배후 산림 활용한 ‘힐링’공간 조성하기’”, 월간 주민자치, 2013.08.16., <http://www.citizenautonomy.co.kr>

2 윤희일, “나무·햇살·새 소리…‘코로나 블루’에 숲은 또 하나의 백신”, 경향신문, 2020.11.25., <https://m.khan.co.kr>

02 시민 이용 후 평가(POE)로 지속적 관리

- 서울산을 이용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조사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용 후 평가(POE) 시행
- 이용 후 평가를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간 시행



[그림 67] 이용 후 평가(POE) 조사 방법

○ 추진계획 및 예산

- 주관부서 :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기획, 발주, 실행 총괄
- 협력부서 :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 대상지 협의 및 관리체계 등
- 추진기간 : 단기적 방안(2024년), 자치구 확산 추진
- 추진예산 : 총 650,000천원

추진사항	202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기획 및 예산편성	1m			
과업발주 및 착수	2m			
디자인 개발 및 설계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사전) ★	5m	
시공 및 감리			3m	
사후 유지 및 관리체계			시민 이용 후 평가	

[표 14] 선도사업2 추진계획

공종	규모	공사비(천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150,000
공사비 점자 트레일 산책로	-	300,000
치유공간 조성	3식	120,000
편의용품 대여 서비스	-	20,000
편의지도 개발	-	60,000
총계		650,000

[표 15] 선도사업2 추진예산(안)

4-2-3.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서울형 관광안내센터 개선 추진전략3

○ 배경

- 2022년 기준 서울시 외래 관광객은 244만 명이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내 구글지도 서비스 제공의 미흡함으로 보행 중심 외국 관광객의 길 찾기에 한계 존재
- 현재 서울시 관광안내센터 및 안내소는 총 2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설 및 정보가 미흡하고 명확한 체계가 없어 인지성 저하
- 서울관광 불편 사항은 편의시설 부족(27.9%), 안내 부족(22.2%)으로 나타났고, 외래 관광객 대상 조사에서는 언어·의사소통의 불편함(52.4%)이 문제점으로 도출

○ 필요성

- 외래 관광객의 관광 편의를 고려하여 쉽게 인지 및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 필요
- 서울의 이미지가 되는 관광안내센터의 역할을 고려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체계와 표준화된 디자인 기준의 정립 필요
- 관광 정보뿐만 아니라 휴식 및 서비스 공간 등 관광 편의시설 적용을 검토하고, 언어의 장벽, 정보 입수의 한계 등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필요



[그림 96] 선도사업3 필요성

○ 기본방향

- 인지성 강화를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서울형 관광안내센터 개선
- 관광약자 및 내·외국인 관광객을 배려한 서비스 및 관광안내센터의 안내 기능과 더불어 공간에 대한 즐거운 경험 제공

○ 세부 내용

01 인지하기 쉬운 서울형 관광 안내체계 개발

- 외국인이 방한할 때의 관광정보 입수 체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관광 안내체계 구축
- 관광 안내의 심볼, 색채 구분 등 인지하기 쉬운 서울형 안내 체계 개발
- 서울의 문화자산, 서울산 등 연계되는 문화·관광 정보와 네트워크 구축



[그림 69]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는 안내표시 1



[그림 70] 안내표시의 반복 사용으로 인지 용이 2

02 여행자를 위한 편의공간 조성

- 주요 관광거점의 관광안내센터를 안내와 더불어 휴식 공간, 놀이 콘텐츠, 짐 보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편의공간으로 확장
- 보행약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이동 공간을 무단차로 설계
- 전동휠체어, 유아차, 보행보조기 등의 대여 서비스로 보행약자 편의성 증진



[그림 71] 휴식공간과 연결된 관광안내센터 3



[그림 72] 다양한 콘텐츠로 활기찬 관광안내소 4

1 Osaka Metro Nine, "Tourist Information Centers", <https://metronine.osak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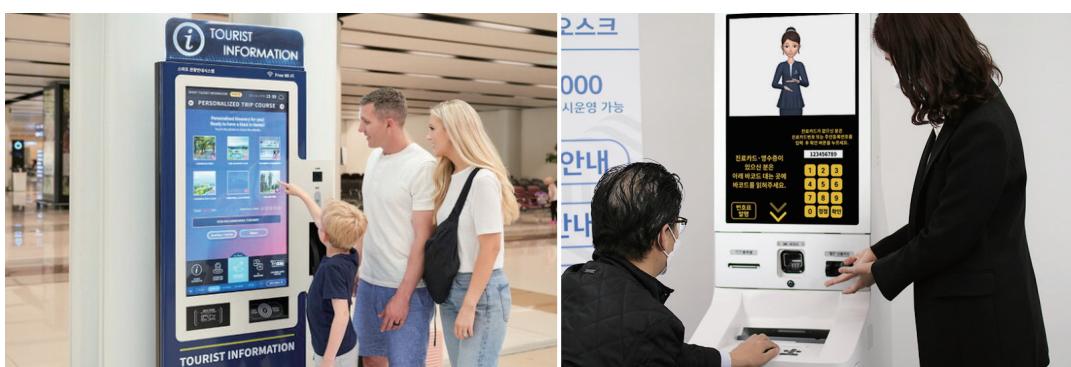
2 Gensler, "San Francisco Visitor Information Center", <https://www.gensler.com>

3 Arch daily, "Tourist Information Centre Postojna / studio stratum", <https://www.archdaily.com>

4 유새봄, "광주 동구 관광 플랫폼 '여행자의 집(ZIP)' 인기", 광주드림, 2022.08.26., <https://www.gjdream.com>

03 인공지능(AI) 기반 사용자 맞춤형 관광 서비스 제공

- 주요 관광거점에 다양한 사용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관광을 추천해 주는 점자·수어 기능이 탑재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 보행약자용 관광코스 개발 및 접근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맞춤형 관광지 안내 책자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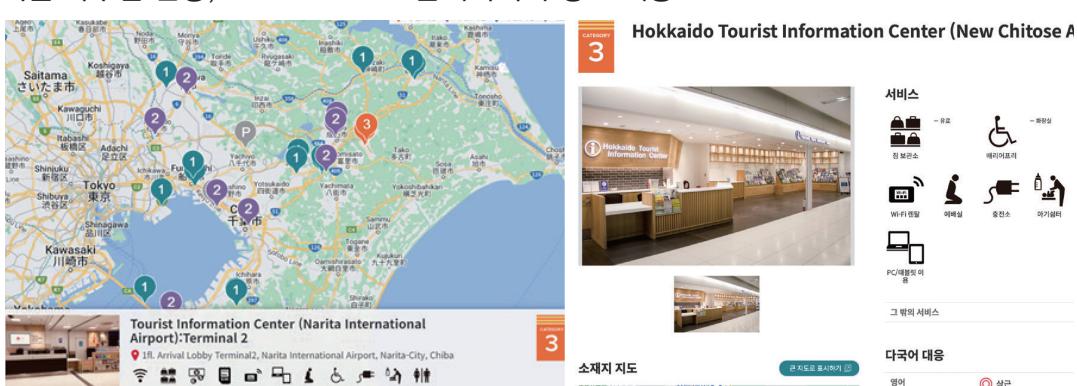
[그림 73] 맞춤형 관광 서비스 무인정보단말기 1

[그림 74] 점자·수어 기능이 탑재된 무인정보단말기 2

○ 실행방안

01 관광안내센터 단계별 정보 체계 정립

- 거점에 따라 관광안내센터 정보 제공 단계를 진입 관문, 광역, 관광거점 3단계로 구분
- 3단계 정보 체계를 인지하기 쉬운 색채 및 문자로 구분하여 관광안내센터 외관에 적용, 서울 다누림 관광, VISIT SEOUL 홈페이지에 정보 제공



[그림 75] 단계별 관광정보 제공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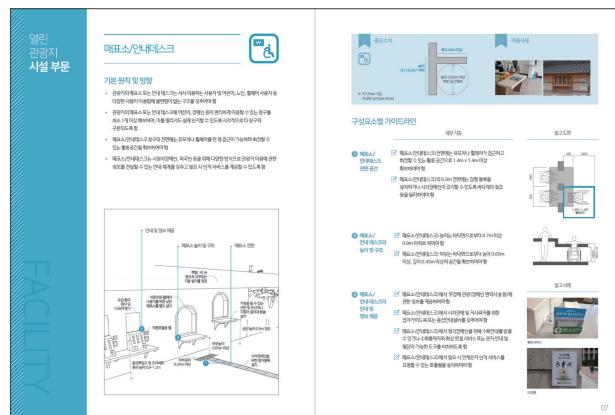
1 김다미,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확대 설치로 관광객 편의 높여”, 여행신문, 2022.06.28., <https://www.traveltimes.co.kr>

2 인상현, “포씨게이트, 스마트병원용 장애인 키오스크 출시”, 4C gate, 2021.10.29., <https://www.4cgate.com>

3 JNTO, “Certified Tourist Information Centers (TICs) in Japan”, <https://tic.jnto.go.jp>

02 관광안내센터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서울형 안내 심볼 및 3단계 정보 체계를 적용한 관광안내센터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하여 접근·이동·안내 정보 등 관광안내센터 이용이 편리하고 인지하기 쉬운 기준 마련



[그림 76] 관광안내센터 가이드라인 예시

○ 추진계획 및 예산

- 주관부서 :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기획, 발주, 실행 총괄
- 협력부서 : 서울관광재단 관광산업본부
 - 관광안내센터 협의 및 지원
- 추진기간 : 단기적 방안(2025년), 연차별 지속 추진
- 추진예산 : 총 565,000원

추진사항	202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기획 및 예산편성	1m			
과업발주 및 착수	2m			
디자인 개발 및 설계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	5m		
시공 및 감리			2m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3m		

[표 16] 선도사업3 추진계획

공종	규모	공사비(천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130,000
공사비 휴식·놀이공간	-	180,000
실내 리모델링	-	250,000
관광 키오스크	5식	5,000
총계		565,000

[표 17] 선도사업3 추진예산(안)

4-2-4. 전 세대를 포용하는 초세대 놀이공간 조성 추진전략4

○ 배경

- 서울시 전체 어린이 놀이터는 1만 317개로, 무장애통합놀이터는 9곳(0.09%)에 불과해 장애인이 접근·이용하기 어려운 놀이환경
- 통합 놀이터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며, 비장애인과 시설물 중심의 놀이시설 기준만 존재
- 1인 가구 증가 및 핵가족화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 이유 중 ‘세대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부족’이 67.9%

○ 필요성

- 물리적 제약 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 확산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무장애를 넘어 모두가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필요
- 시설물 중심에서 놀이공간 전체를 고려한 디자인과 놀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 필요
- 세대 간 갈등 해결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놀이공간을 매개로 하고, 특정 세대만이 아닌 다양한 세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 조성 필요



[그림 77] 선도사업4 필요성

○ 기본방향

- 연령 및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양한 세대가 이용하며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초세대 놀이공간 조성

○ 세부 내용

01 무단차 놀이시설 설치

- 물리적 제약 없이 다양한 사용자가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단차 없는 놀이시설 설치
- 어린이부터 고령자,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양한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 및 이동 동선 설계



[그림 78] 단차가 없는 놀이시설 1



[그림 79] 누구나 이용가능한 놀이시설 2

02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계획

-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놀이공간과 활동을 유도하는 운동시설 및 산책로, 휴식 및 의사소통이 가능한 휴게공간 등 복합적인 공간 조성
- 다양한 사용성을 고려하여 연령대별 특화 공간을 조성하고, 각 특화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공간별 동선 계획



[그림 80] 휴식공간이 함께 조성된 놀이터 3



[그림 81] 산책로, 휴식, 놀이가 결합된 복합공간 4

1 박미소, “0.04%의 행운, 무장애 놀이터 [포토IN]”, 시사IN, 2023.05.09., <https://www.sisain.co.kr>

2 proludic, “INCLUSIVE PLAY AREAS GUIDE”, <https://www.proludic.com.au>

3 100architects, “PEGASUS TRAIL”, 2021.02.01., <https://100architects.com>

4 HDR, “Rodney Cook Sr. Park in Historic Vine City”, <https://www.hdrinc.com>

03 다양한 세대를 포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세대 간 경계 없이 모두가 쉽게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진입장벽이 낮은 놀이시설 및 공간 조성 계획
-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자극하여 누구나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놀이시설을 설치



[그림 82] 오감 자극 및 전 세대가 이용 가능한 놀이시설물

○ 실행방안

01 시민 참여형 디자인 개발 및 유지·관리체계 구축

-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 반영
- 사업 종료 후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 점검 시행



[그림 83] 시민참여형 놀이시설 발굴 2



[그림 84]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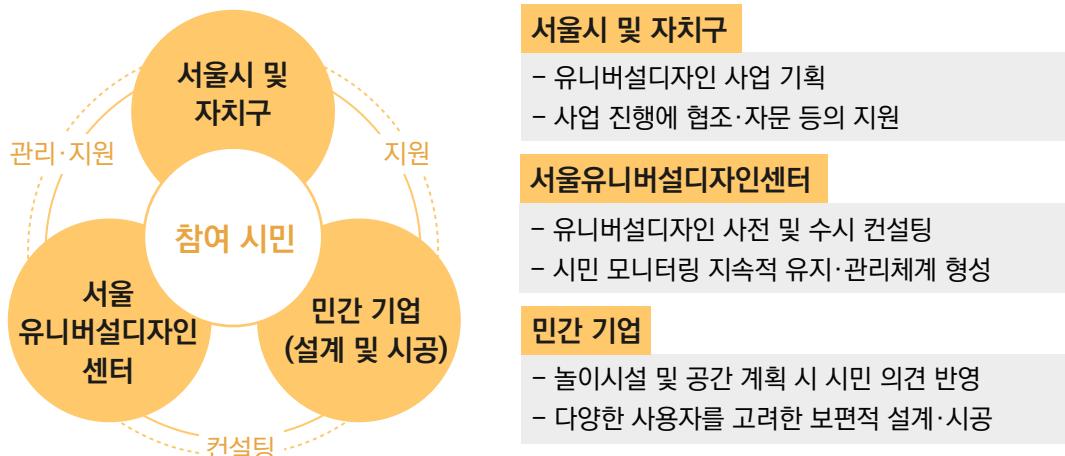
1 landsacpe structures, “NEW! Focal™ Sensory Wall”, <https://www.playlsi.com>

2 김민희, “어린이의 놀이터가 된 미술관이 있다?!”, 강원일보, 2022.08.10., <https://kwnews.co.kr>

3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2022년도 생태 시민모니터링”, 2022.10.24., <https://incheoneec.or.kr>

02 사업 효율성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기획·진행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 컨설팅 및 시민 참여를 지원하는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센터, 민간 기업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추진계획 및 예산

- 주관부서 :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기획, 발주, 실행 총괄
- 협력부서 :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진흥본부(서울특별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
 - 유니버설디자인 시민단 및 컨설팅 운영
- 추진기간 : 단기적 방안(2024년), 자치구 확산 추진
- 추진예산 : 총 590,000천원

추진사항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기획 및 예산편성	1m			
과업발주 및 착수	2m			
디자인 개발 및 설계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사전, 수시) ★ ★ 5m		
시공 및 감리			3m	
사후 유지 및 관리체계			지속 모니터링	

[표 18] 선도사업4 추진계획

공종	규모	공사비(천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150,000
공사비 UD적용 놀이공간	-	250,000
산책로 및 휴게공간	2식	55,000
바닥 마감 등 포장	-	120,000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15,000
총계		590,000

[표 19] 선도사업4 추진예산(안)

4-2-5. 게임으로 즐겁게 만드는 학교 UD맵 및 교육 고도화 추진전략5

○ 배경

- 2015년 이후 서울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인성·창의 교육을 시행했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초등교육 과정 중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편성
- 2021년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하여 교육용 영상 제작 및 배포했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로 유니버설디자인 이해 제고
- 서울시 초등학교 내 유니버설디자인 요소 중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가 가장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 도출¹

○ 필요성

- 기존 교육과정의 체험 방식과 차별화된 활동형 교육으로 고도화 및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필요
- 일방적인 소통보다 양방향 콘텐츠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으로 전환 및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 콘텐츠로 교육의 적극적 노력 필요
- 학생 관점에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학교로의 접근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쉬운 정보 전달 필요



[그림 86] 선도사업5 필요성

○ 기본방향

- 학생들의 흥미·적극성을 유도하는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고, 학교에서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 개선

¹ 이규일(2021),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실태에 관한 연구

○ 세부 내용

01 직접 발굴하는 활동형 교육 시행

- 학생들의 경험을 토대로 학교에서 접근·이동이 불편한 요소를 직접 발굴하는 활동형 교육 시행
- 학생들이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학교 시설 및 공간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적극성 제고



[그림 87] 학교 내 접근성·이동 문제점 발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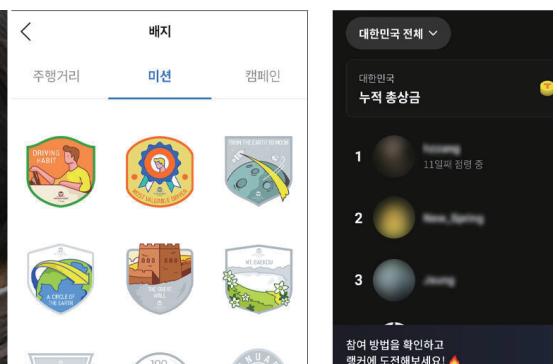
[그림 88] 개선방안 아이디어 발굴 2

02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게임 콘텐츠 개발

-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³을 활용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및 콘텐츠 개발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에 따른 미션 수행 보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및 수준으로 교육을 구성하고, 저학년·고학년으로 나누어 맞춤형 교육 및 게임 콘텐츠 개발



[그림 89] 게임으로 재미있게 배우는 교육 4



[그림 90] 보상심리 자극 미션 5

1 서영배, “암해서초, 안전한 학교생활 아동안전지도 제작”, 뉴스에듀, 2015.05.14., <http://www.newsedu.co.kr>

2 박종일, “생활 속에 숨은 디자인 찾아라”, 아시아경제, 2018.05.23., <https://cm.asiae.co.kr>

3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게임 기법을 적용한다’는 뜻의 합성어

4 강중민, “플레이를 ‘수업을 게임으로 만들어드립니다’”, 한국교육신문, 2022.01.05., <https://www.hangyo.com>

5 큐레이터, “왜 이 업체들은 ‘게임’에 공들일까요?”, 2023.06.08., <https://v.daum.net/v/f0CzHEhVMa>

03 학생 참여형 유니버설디자인 맵 제작

- 학교에서 접근·이동하기 어려운 지점과 이동약자 취약지점 정보 체크
- 학생들의 관점에서 모두가 접근이 가능한 길, 쉬운 길, 어려운 길 등을 표시한 유니버설 디자인 맵 제작



[그림 91] 학생들의 관점에서 만드는 지도 1



[그림 92] 접근성을 표시한 지도 2

○ 실행방안

01 시민 참여형 디자인 개발 및 유지·관리체계 구축

- 학교 내부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 통학로 접근성에 대해서도 확장하여 전반적으로 접근 및 이동이 편리한 통학로 구축



[그림 93] 안전하고 편리한 동선 표기 지도 3



[그림 94] 이동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4

1 권기정, “아이들이 직접 만든 우리 동네입니다”, 경향신문, 2022.12.19., <https://m.khan.co.kr>

2 Macao Institute for Tourism Studies(IFTM), “Barrier Free Facilities”, <https://www.iftm.edu.mo>

3 WheeLog, <https://wheelog.com/en>

4 가치더함, “무장애 여행을 위한 지도 및 데이터 구축”, <https://jejudsi.kr>

02 공유가치 창출형 유니버설디자인 콘텐츠 개발

- 민간 기업과 공유가치 창출을 통해 기술력을 지원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게임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그림 95] 공유가치 창출형 유니버설디자인 구조

○ 추진계획 및 예산

- 주관부서 :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진흥본부(서울특별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
 - 유니버설디자인 지도 제작, 실행, 교육 등 총괄
- 협력부서 :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학교 협력 및 교육과정 지원
- 추진기간 : 단기적 방안(2025년), 연차별 지속 추진
- 추진예산 : 총 73,000천원(연간 비용 발생)

추진사항	202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기획 및 예산편성	1m			
시범대상지 선정	2m			
유니버설디자인교육시행		5m		
UD지도 제작 및 배포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 4m	
모바일 콘텐츠 개발			4m	

[표 20] 선도사업5 추진계획

공종	규모	공사비(천원)
운영비(대관, 회의 등)	-	2,000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	1,000
UD지도 제작 및 배포	-	20,000
모바일 콘텐츠 개발비	-	50,000
총계		73,000

[표 21] 선도사업5 추진예산(안)

4-3. 추진과제

4-3-1. 이용이 편리한 심리 안정 공공의료시설 개선 추진전략1

○ 배경

- 서울 고령자 인구는 1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이며, 급격한 고령화로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 등 의료시설의 역할 중요성 대두
- 고령자의 인지건강이 떨어지는 데에 반해 인지성을 고려한 의료시설 부족(서울시 치매 사망률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7.1명/10년 전 대비 2.89배 증가)
-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16곳 중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단 2곳뿐이며, 몸이 불편하거나 훌체어 사용자도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 및 환경 부족
- 병원을 방문하는 것 자체로 스트레스나 피로감, 두려움 등의 심리적 긴장감 유발

○ 필요성

- 고령자도 쉽게 시설을 인지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의 정보체계가 요구되며, 길 찾기 및 진료 동선이 혼선되지 않도록 실·내외 정보체계 구축 필요
- 누구나 진료·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설 구축 및 물리적 접근과 이용상 제약이 있는 요소 개선 필요
-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과 심리적 관점에서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공간을 조성하여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필요



[그림 96] 추진과제1 필요성

○ 기본방향

- 누구나 편리하게 검진·진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시설 및 환경 개선

○ 세부 내용

01 모두가 인지하기 쉬운 색채 디자인

- 공간별 색채 구분으로 진료시설의 위치 및 동선 명확화
- 이용 동선에 따른 연속성 있는 정보 안내 제공
- 주요 시설의 문, 안전 손잡이, 바닥 사인 등에 명도 대비가 높은 색채 적용



[그림 97] 명도 대비로 눈에 띠는 색채 적용 1

[그림 98] 인지성이 높은 색채 계획 2

02 모두가 인지하기 쉬운 색채 디자인

-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누구나 제약 없이 검사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진료 및 검사시설에서 휠체어가 회전이 가능한 최소 공간 확보



[그림 99] 휠체어도 가능한 검사시설 3

03 심리 안정 바이오플릭(Biophilic)⁴ 디자인

- 대기공간에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채로운 식물 활용
- 진료시설에 바이오플릭 디자인을 적용하여 의료공간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효과 유도



[그림 100] 병원 내 긴장감 완화 요소 적용 5



[그림 101] 진료시설 바이오플릭 적용 5

1 BIGfoto.name, <https://bigfoto.name/19940-bolnica-aviagorodok-v-interere-59-foto.html>

2 Sylvia Mauro, "Hospital & Healthcare Signage: Improving Patient Satisfaction", <https://www.dgicomunications.com>

3 박종태, 서울의료원 장애인건강증진센터 편의 '만족', 에이블뉴스, 2016.04.21., <https://www.ablenews.co.kr>

4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기 위해 식물, 물, 자연 채광을 공간에 적용하는 디자인 방법

5 ETKHO, "Biophilic design in hospitals: the importance of natural light in the health of patients", 2021.10.26., <https://www.etkho.com>

4-3-2.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인지 강화형 학교 통학로 구축 추진전략1

○ 배경

- 민식이법 시행(2020)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소폭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20% 증가
-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 등의 무분별한 설치로 도로 위 노랑 색채가 오히려 인지 혼란 야기
- 10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중 76%가 1~2차도의 소로에서 발생하며, 어린이 교통사고는 넓은 도로보다 좁은 도로 환경이 위험

○ 필요성

-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지 강화형 디자인 적용과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행약자도 주의할 수 있는 시설 필요
- 시설 주변 인지 혼란을 유발하는 과도한 색채 지양 및 추가적인 기술적 지원 검토
- 시설물 위주의 설치를 지양하고, 어린이 및 보행자의 시선을 고려하여 디자인 적용
- 좁은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요소 및 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기술 적용 필요



[그림 102] 추진과제2 필요성

○ 기본방향

- 인지하기 쉬운 디자인 요소를 강화하고, 스마트 기술 적용으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 조성

○ 세부 내용

01 통학로 주의·인지 강화형 디자인 적용

- 학교 통학로의 이용자, 유동인구, 이용 시간대 등의 분석으로 인지 강화 요소 발굴
- 어린이 및 운전자가 상호주의 및 인지할 수 있는 요소 강화
- 야간에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횡단보도 인지 기술 적용



[그림 103] 눈높이를 고려한 통학로 안내판 1

[그림 104] 야간 인지 강화 2

02 어린이 횡단시설 집중 디자인 적용

- 횡단시설 주변 주의 구간에만 노란색 색채 집중 및 주의 구간 외에는 색채 제거
- 인공지능(AI)기술로 교통사고 예방과 대응하기 위한 지능형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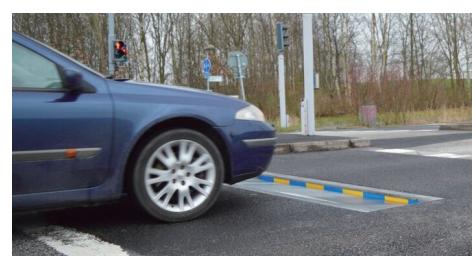
[그림 105] 횡단시설 주변 색채 정리



[그림 106] 지능형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 3

03 좁은 도로의 과속 차량 대비 반응형 시스템 실증

-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여 사고 예방 및 즉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과속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반응형 시스템 적용



[그림 107] 과속 운전 시 요철 반응 시스템 4

1 박아름, “지역민의 안전을 지키는‘공공디자인’”, 디자인정글, 2022.02.23., <https://www.jungle.co.kr>

2 abel, “S-Pass”, <https://www.abeleclairage.fr/en/our-products/others/s-pass>

3 원금희, “송파구, AI카메라 활용 '스쿨존' 안전 UP”, 시사경제신문, 2023.08.01., <https://www.sisanews.kr>

4 Carina Dietze, “Eine Fallgrube gegen Raser? Deutsche Stadt erwagt Blitzer-Alternative”, EFAHRER, 2023.02.13., <https://efahrer.chip.de>

4-3-3. 모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활력 있는 공개공지 개선 [추진전략1]

○ 배경

- 서울시 공개공지는 2021년 기준 2,326개소이며, 일정 규모 및 용도에 따른 의무 설치 규정으로 단순히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로만 설치하는 경우 다수
- 서울시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지침이 있으나 설치 방법 및 위치 등 상세한 지침 부재하여, 공개공지 안내판을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다수
- 건축 조례에서 벤치, 파고라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 지침이 부족하여 공개공지 내 공공시설물 품질이 떨어져 질적 수준 저하

○ 필요성

- 보도에서 공개공지로의 연결성과 접근성 고려 및 공개공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 필요
- 공개공지 안내판은 누구나 인지하기 쉬운 공간에 설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범용적인 기준으로 점자 및 음성 등의 병기 필요
- 공개공지 내 공공시설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 공공시설물 설치 기준을 보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필요



[그림 108] 추진과제3 필요성

○ 기본방향

- 공개공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한 편리한 사용성 제공

○ 세부 내용

01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보도에서 공개공지까지 단차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공개공지를 쾌적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 조성
- 기존 공개공지 중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해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공간으로 개선



[그림 109] 단차가 없는 공개공지 접근 1



[그림 110] 개방성 있는 공개공지 2

02 인지하기 쉬운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기준 제시

- 기존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지침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강화 및 개선
- 시각 장애인도 인지 가능하도록 점자 표기 및 음성 안내시설 설치
- 시야에 방해받지 않는 진입부에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및 규격 재조정



[그림 111]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안내사인 3

03 공개공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개발

- 기존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지침 개발
- 사용자 관점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 구성 및 시설물 설치의 상세 기준 제시



[그림 112] 휴식·소통·산책이 가능한 공간 구성 4

1 BIGfoto.name, <https://bigfoto.name/19940-bolnica-aviagorodok-v-interere-59-foto.html>

2 박철희, “멋진 빌딩숲 사이 카페와 상점들… 상쾌하구나 마루노우치!”, 조선일보, 2017.03.13., <https://www.chosun.com>

3 박현석, “소득·장애 여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허드슨야드”, 충청투데이, 2022.08.20., <https://www.cctoday.co.kr>

4 LANDEZINE, “Pancras Square”, <https://landezine.com/pancras-square-by-townshend-landscape-architects>

4-3-4. 모두를 위한 다감각 인지향상 스마트 안내디자인 추진전략1

○ 배경

-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많아 한눈에 읽기 어렵고, 공급자 편의에 의해 설치된 안내시설물로 정보 혼란 야기
- 저시력자 및 시각장애인 등의 사용자를 위한 안내시설 부족 및 정보를 인지하는 시야 높이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안내시설물 존재
- 안내정보체계의 인지성, 연계성, 연속성이 떨어져 길 찾기에 어렵고, 골목길이 많아 처음 방문하는 초행자가 길 찾기에 어려운 요소 다수

○ 필요성

- 주변 지역 및 시설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안내시설물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 필요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는 정보를 읽는 시야가 상이하므로,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디자인 필요
- 초행자, 인지 저하자 등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안내 정보 체계화 및 기존 안내시설물 개선 필요



[그림 113] 추진과제4 필요성

○ 기본방향

- 사용자 배려형 안내디자인 개선으로 다양한 사용자도 이용하기 편리한 안내정보 체계 구축

○ 세부 내용

01 디지털 기반 스마트 안내시설물 설치

- 주요 종합 안내가 필요한 장소 거점에 스마트형 안내시설물 설치
-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철도역, 문화시설 출입구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중적으로 설치
-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높이로 설치



[그림 114] 디지털 종합안내도 화면¹

02 다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안내 체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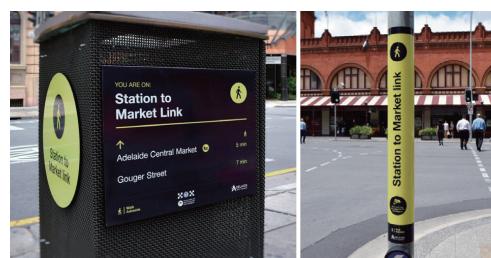
-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 안내가 함께 설치된 다감각 안내 시스템 구축
- 주요 관광시설은 3D프린터를 활용하여 형태를 느낄 수 있도록 계획



[그림 115] 촉각지도 안내사인²

03 연속적·반복적 정보 노출을 통한 인지 향상

-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주요 시설의 반복적인 정보 노출을 통한 연속성 있는 안내 체계 구축
-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 기존의 분전함, 가로등 등의 공공시설물을 활용
- 기존의 안내시설물 디자인과의 조화성 고려 및 인지성 강화



[그림 116]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연속적인 안내체계³

¹ ST DIGITAL, “Smart City Digital Signage Lucerne (CH)”, <https://st-digital.de>

² Carole Martinez, “Creating Inclusive Multisensory Signag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ttps://www.inclusivecitymaker.com>

³ STUDIO BINOCULAR, “Adelaide City Wayfinding”, <https://www.studiobinocular.com>

4-3-5.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공공한옥시설 개선 추진전략2

○ 배경

- 한옥 구조상 출입구 단차 및 문턱이 있어 휠체어, 유아차 등의 이용자는 접근에 제약이 있으며, 이동약자 및 저시력자, 유아동반 이용자의 접근 및 이동에 어려움 발생
-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한옥은 34곳으로, 문화전시 및 주민이용시설, 숙박 등으로 활용
- 공공한옥의 시설 이용 만족도는 8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길 찾기 시설의 만족도는 65.3%로 이용 만족도보다 낮은 결과
- 한옥은 점자블록 및 촉지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이나 찾아오기 어려운 환경이며, 다양한 관광약자를 배려한 인프라 부족

○ 필요성

- 이동약자 및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한 단차 제거 및 휠체어 등의 이용자도 이동하기 편리한 환경 조성 필요
-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시인성 및 인지성을 높인 안내판 설치 및 외부에서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안내 시스템 필요
- 언어 등에 따른 제약 없이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지원 및 누구에게나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편의시설 및 서비스 제공 필요



[그림 117] 추진과제5 필요성

○ 기본방향

- 공공한옥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높여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시설 및 서비스 구축

○ 세부 내용

01 이동약자를 위한 공공한옥 접근성 제고

- 출입구 문턱의 무단차 설계 및 경사로, 문턱이 높은 한옥은 매립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
- 휠체어 리프트 시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색채로 구분



[그림 118] 단차시설 경사로 설치 1



[그림 119]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한 휠체어 리프트 2

02 누구나 인지하기 쉬운 안내 시스템 구축

- 외부에서 공공한옥 공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종합안내도 설치
- 누구나 읽기 쉽도록 명도 높은 색채, 서체, 점자 및 픽토그램을 적용한 서울형 공공한옥 안내판 시범 설치
- 시각장애인용 점자가 함께 표기된 안내 책자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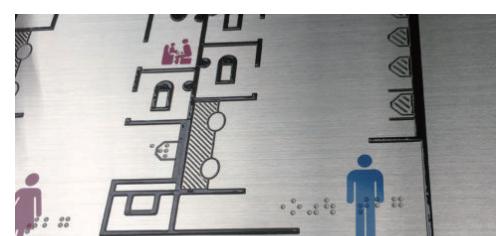


[그림 120] 한옥과 조화로운 안내 표지판 디자인 3

[그림 121] 점자표기 안내 책자 4

03 다양한 관광약자를 고려한 편의 개선

- 점자 표지판, 음성 안내 등의 설치로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구축
- 외국인을 배려한 다국어 지원 서비스 제공 및 다국어 표기 기준 수립



[그림 122] 공간 예측이 가능한 점자안내도 5

1 뉴시스, “공항픽업·보조기기 대여…외국인 관광약자 문턱 낮춘다”, 2022.11.11., <https://mobile.newsis.com>

2 이동미 · 김미선, “점자 책자 ‘훌륭’…장애인용 동선 · 유도선 필요, 대구 중구 근대문화골목”, 2020.03.12., <https://www.ktsketch.co.kr>

3 전주한옥마을, <https://hanok.jeonju.go.kr/star/view/83>

4 이동미 · 김미선, “점자 책자 ‘훌륭’…장애인용 동선 · 유도선 필요, 대구 중구 근대문화골목”, 2020.03.12., <https://www.ktsketch.co.kr>

5 SEKOBISOUTEN, “Station Braille block repair”, EFAHRER, 2017.10.30., <https://sekobisoute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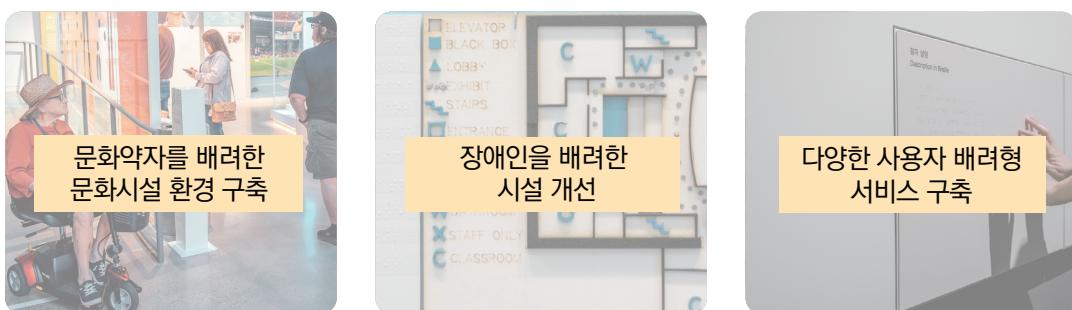
4-3-6. 다감각을 활용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전시공간 추진전략2

○ 배경

- 「문화기본법」에서 지자체가 문화 가치의 사회 영역 전반 확산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서울시 문화약자 수는 약 63만 명
- 코로나19 이후 서울시민의 공연전시 관람률은 2020년 대비 12.7% 증가했고, 서울시민 문화예술 관람률의 69%가 회복되었으나 장애인은 39%에 불과
- 장애인의 여가 활동 중 문화예술관람은 서울시민이 10.8%인 것에 비해 절반 정도 낮은 4.2%로 조사

○ 필요성

- 문화약자도 공간적 제약 없이 문화생활에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물리적 접근 및 편의성 개선 필요
- 공연전시관람률이 증가하는 만큼 다양한 약자를 배려하는 공간이 요구되며, 문화예술관람 회복을 위한 관람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 개선 필요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관람률을 증가시키고,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을 배려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필요



[그림 123] 추진과제6 필요성

○ 기본방향

- 전시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접근 및 관람을 편리하게 조성하고, 문화약자의 문화 활동 활성화

○ 세부 내용

01 편리한 이동을 위한 인지하기 쉬운 동선 제공

- 전시공간의 이동 동선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방법이 적용된 동선 정보 표시
- 전시시설 입구에 주요 시설을 안내하는 종합안내도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촉지도 병행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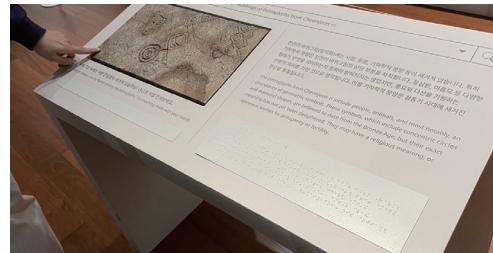


[그림 124] 엘리베이터 이용 동선 안내¹

[그림 125] 전체 전시공간을 인지할 수 있는 촉지도²

02 다감각 전시작품 설치

-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하여 촉각, 청각적 감각을 활용한 전시시설을 구축
- 전시 작품마다 점자 및 음성 안내, 만질 수 있는 3D 축소 모형 작품을 함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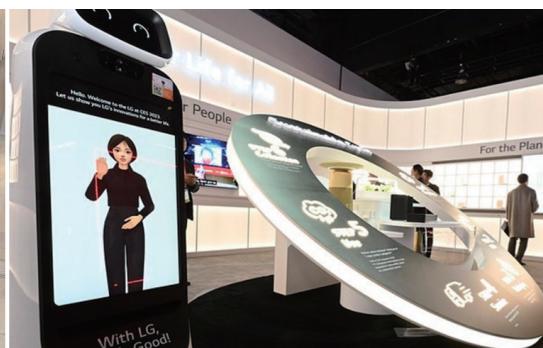
[그림 126] 촉각으로 만질 수 있는 축소모형 작품

03 사용자 맞춤형 인공지능(AI) 로봇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사용자 유형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 AI로봇 지원
- 청각장애인의 전시 관람을 위한 디지털 휴먼 수어 서비스(큐레이터) 제공



[그림 127] 전시 관람을 돕는 AI로봇³



[그림 128] 디지털 휴먼 수어서비스 제공⁴

¹ Taatile Studioo, “Inclusive Design Expertise for an Accessible Museography”, <https://tactilestudio.co>

²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배리어프리 동선 안내 지도”, https://www.accf.or.kr/main/guide/Information4_5_3.

³ 김수정, “박물관 관람, 로봇 큐아이와 함께 더 재미나게 구경해요!”, 내 손안에 서울, 2022.10.24., <https://mediahub.seoul.go.kr>

⁴ 박영주, “[포토뉴스] CES 2023 LG전자 부스”, EFAHRER, 시카고오늘, 2023.01.05., <https://onglfre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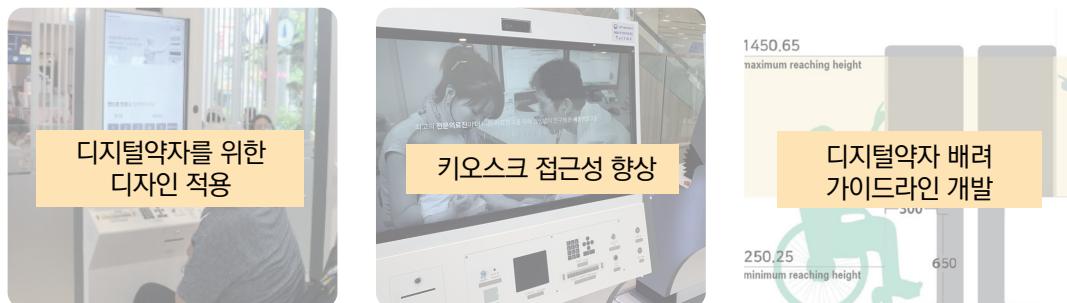
4-3-7. 디지털약자를 위한 키오스크 구성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전략3]

○ 배경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사회 가속화로 디지털 소외계층 증가
- 디지털약자의 정보화 수준은 평균 계층보다 약 10~20% 저하
- 고령자, 시각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등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사용에 제약이 있어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46.6%
- 디지털약자를 위한 사용 편의 키오스크 지침이 없으며, 해외에서는 디지털 및 웹 접근성 지침 개발 및 배포

○ 필요성

- 정보화 수준이 낮은 디지털약자를 위한 인지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하고, 디지털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접근성 향상
- 디지털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포용적 대안이 요구되며, 정보화 수준이 낮은 디지털약자를 위한 인지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필요
- 휠체어 사용자, 고령자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지침 개발 필요



[그림 129] 추진과제7 필요성

○ 기본방향

-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기준을 수립하여 디지털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세부 내용

01 공공기관 무인정보단말기 인터페이스 개발

-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빈도에 따라 메인화면 재설계
-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
- 디지털약자용 큰 글씨 및 음성 지원 등 쉬운 사용 모드 및 이용 방법 제공



[그림 130] 쉬운 메인화면 구성 1

02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공간의 구성방향 제시

-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하부 공간 및 활동공간 확보, 화면 및 조작부의 권장 높이 기준 수립
- 사용 및 조작이 용이한 버튼 형식이나 점자패드, 음성지원 등 다양한 전달 방식 사용



[그림 131]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2



[그림 132] 인지가 쉬운 버튼형 무인정보단말기 3

03 인지가 쉬운 사용자 배려형 인터페이스 구축

- 화면 구성 및 배열, 크기와 명도 등 디지털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침 개발
- 정보의 복잡성, 시야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인지하기 쉬운 무인정보단말기 화면 가이드 제공



[그림 133] 쉬운 모드 화면 개선안 4

1 선치영, “대덕구, 대덕구노인복지관 3곳에 교육용 키오스크 설치”, 데일리한국, 2022.04.20., <https://daily.hankooki.com>

2 Emily Barrieau, “Accessibility at YVR – A Journey of Constant Improvement”, 2019.12.03., YVR, <https://www.yvr.ca/en>

3 PAC, “Inclusive Digital Interactives for CMHR”, <https://www.pac.bz>

4 박지윤, ““셀프오더가 뭔뜻?” 야속한 키오스크,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한국일보, 2021.04.01., <https://m.hankookilbo.com>

4-3-8. 보행약자를 위한 인지하기 쉬운 점자블록 개선 추진전략3

○ 배경

- 서울시 보도의 지적건수가 가장 많은 요소는 ‘횡단보도 턱낮춤 및 점자블록’이 40.5%, 스쿨존의 엘로카펫, 보도블럭 색채 등에 의해 바닥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 점자블록 유지·관리 관련 민원이 3년간 1.7배로 급증했으며, 횡단보도 근처 점자블록의 설치 방향이 잘못된 경우 다수 발견
- 보행공간 내 장애물이 많아 시각장애인의 시설 인지 및 길 찾기에 어렵고 복잡한 환경이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길 찾기 등의 시설이 부족

○ 필요성

-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점자블록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점자블록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 필요
- 횡단보도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시설 보완 및 연속성 있는 점자블록 설치 필요
- 시각장애인의 도보 이동 시 편리하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시설 구축 및 보행공간에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필요



[그림 134] 추진과제8 필요성

○ 기본방향

-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약자의 이용 편의성 및 인지성을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

○ 세부 내용

01 인지성이 강화된 보도공간 시범 조성

- 설치 환경에 상관없이 저시력자에게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 양옆에 색채 강조
- 선형 점자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하며, 장애물이 없는 안전한 동선으로 설치



[그림 135] 색채 대비 및 연속적으로 설치된 점자블록¹



[그림 136] 색채 대비로 시인성을 높인 점자블록

02 누구나 안전한 횡단시설 에스코트존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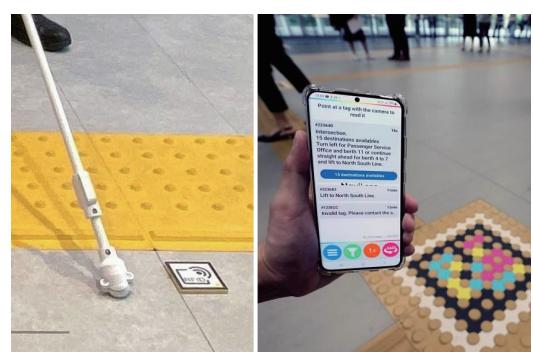
- 횡단보도 보행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방향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에스코트존 설치
- 보도 내 점자블록에서 횡단보도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고려하여 설치



[그림 137] 횡단보도에도 이어지는 점자블록²

03 점자블록을 활용한 길 찾기 안내 시스템 연계

- 점자블록의 일부를 활용하여 시각장애인 및 외부 방문객을 위한 길 찾기 시스템 연계
- 점형 점자블록 교차점에서 무선인식기술(R-FID)로 공간을 감지하여 스마트폰으로 음성 안내 및 길 찾기 지원
- 길 찾기 정보는 저시력자도 인지할 수 있도록 대비가 강한 색채 적용



[그림 138] 시각 장애인 보행 지원 시스템³

¹ Fujisawa City, "Example of installing blocks to guide visually impaired people", <https://www.city.fujisawa.kanagawa.jp>

² 전경훈, "[日에 비춰본 한국 장애인 이동권] (3) 보행", 광주드림, 2023.04.23., <https://www.gjdream.com>

³ Fatimah Mujibah, "SMRT rolls out app to help visually impaired commuters at Woodlands transport hub", THE STRAITS TIMES, 2022.05.31., <https://www.straitstimes.com>

4-3-9. 재난약자를 위한 사고 대응형 생활도로 개선 [추진전략3]

○ 배경

- 서울시 내 폭 12m 미만의 생활도로가 연장 기준 76.8%로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의 안전 위협
-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전체 도로 교통사고 중 47.2%가 생활도로로, 생활도로 내 불법주정차, 보행자 편의, 안전시설 등의 중점 개선 사항 요구
- 소방차 등 대형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4m 미만의 도로가 24.0%이며 생활도로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교통사고, 재난사고 대응, 생활안전사고 순으로 전개

○ 필요성

- 생활도로 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차도 분리 및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는 속도저감시설 필요
-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도로에서 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축 필요
-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생활도로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 적용 및 교통사고 예방, 재난 대응형 시설 및 환경 조성 필요



[그림 139] 추진과제9 필요성

○ 기본방향

- 재난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및 재난사고에 대응하는 생활도로 조성

○ 세부 내용

01 보행공간 확보 및 속도저감시설 설치

- 좁은 생활도로에 적용 가능한 보행 공간 확보 및 차량속도 저감시설 적용
- 도로 폭을 좁아 보이게 하는 포장재 및 마감 방법으로 차량 속도를 낮추는 효과 유도



[그림 140] 도로 폭 좁힘 효과¹

02 안전 및 주의를 인지시키는 그래픽 적용

- 주차 및 보행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시야 확보를 고려하여 주차공간의 연속적인 배치 지양
- 휠체어 사용자 및 어린이 등 다양한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누구나 인지하기 쉬운 반사경 디자인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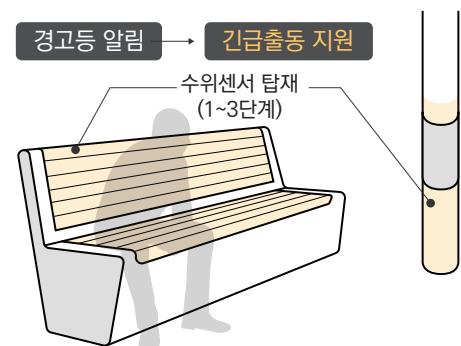
[그림 141] 주차공간과 보행공간 분리²

03 비상시를 대비한 재난 대응 공간 및 시설물 설치

-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평상시에 공원으로 활용하고, 재난 및 비상시에 피난 장소로서 역할을 하는 방재공원 조성
- 상습 수해지역 가로시설물에 수위 센서 설치 및 자동 긴급출동 연계
- 경사 지형의 생활도로에는 겨울철 강설을 대비한 미끄럼방지 열선 설치



[그림 142] 비상시를 대비한 방재 공원³



[그림 143] 재난대응 시설물

¹ Damian Holmes, "Bell Street Park | a hybrid of park activities and street functions by MIG|SvR", WLA, 2018.10.15., <https://worldlandscapearchitect.com>

² NATO, "Urban Street Design Guide", <https://nacto.org/publication>

³ KOTOBUKI, "浑水 중앙 방재 공원 _ 일시 피난 장소로서의 방재 공원", <https://townscape.kotobuki.co.jp>

4-3-10. 주거약자를 배려한 노후공공주택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추진전략3

○ 배경

- 서울시에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2021년 기준 49.5%로,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노후주택 다수
- 2022년 서울시 고령자의 안전사고 중 낙상사고가 44.2%, 고령자 낙상사고 발생 장소는 주거지가 74.2%로 주거지 인근 안전 취약
- 급속한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가 급증하고, 1인 가구 고령자는 안전사고에 더욱 취약

○ 필요성

- 노후주택 거주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필요성 증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인지하기 쉬운 시설로 개선 필요
- 평소에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시설 및 신체적 활동을 유도하는 공간 필요
- 1인 가구 고령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이웃 간의 교류 활성화 공간 및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 필요



[그림 144] 추진과제10 필요성

○ 기본방향

- 노후주택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고령자 낙상사고 예방 및 주거약자를 위한 시설 인지성 향상

○ 세부 내용

01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색채 디자인 적용

- 차량과 보행자가 중첩되는 구간에 주의 표시 및 동선 분리
- 동간 및 층별 등 수평·수직적 이동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자 크기 및 색채 적용
- 출입구(문), 손잡이, 엘리베이터 등에 명도 대비가 강한 색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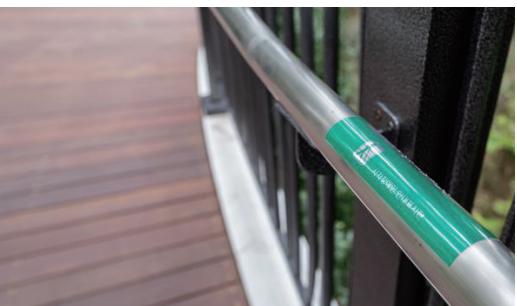
[그림 145] 보행자 충돌주의 구간 표시 1

02 유휴공간을 활용한 낙상 예방공간 조성

- 공용공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낙상사고 예방 산책 및 운동이 가능한 공간 조성
- 모든 시설에는 안전을 위한 손잡이 및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그림 146] 산책 및 운동이 가능한 공간 2



[그림 147] 점자 표기 안전 손잡이 3

03 다세대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 조성

- 아파트 내 휴식과 서로 대화가 가능한 커뮤니티 공용공간 조성
-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류 식재 및 청각, 후각 등의 감각을 자극하는 시설 설치
-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 조성



[그림 148] 자연을 느끼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 4

1 김정민, “강남구, 삼화페인트공업㈜와 ESG 협업”, 서울로컬뉴스, 2022.11.25., <https://www.slnews.co.kr>

2 정석한, “LH, 노후 영구임대주택 ‘체인지업’으로 지역활력 불어넣어”, 대한경제, 2022.08.09., <https://m.dnews.co.kr>

3 서울특별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 <https://www.sudc.or.kr/main/cts.do?ctsno=gallview4#img4>

4 Symphony Senior Living, <https://www.symphonyseniorliving.com/assistedliving>

4-3-11 . 실무용 유니버설디자인 사례집 제작 및 DB화 추진전략4

○ 배경

- 일부 지자체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수립 및 적용 사업을 추진했으며, 서울시에서 9년간 지속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 시행
- 자치구 자체 사업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사업 방향이 BF수준에 그치는 경우 다수
- 유니버설디자인 성공 사례 및 실무적인 정보 부족
- 모법의 부재로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에 한계가 있으며, 타 분야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사업 부족

○ 필요성

- 유니버설디자인을 홍보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유니버설디자인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 및 기본 개념보다 더 심화된 자료 필요
- 유니버설디자인을 확산하기 위한 활용도 높은 정보 제공 및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필요



[그림 149] 추진과제11 필요성

○ 기본방향

- 고도화된 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실무용 유니버설디자인 사례집 제작 및 DB화

○ 세부 내용

01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성과 공유 및 확산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성과 공유회 및 전문가 콜로키움 개최
- 유니버설디자인 최신 소식을 전달하는 실무자용 뉴스레터 운영



[그림 150] 디자인 콜로키움¹

02 유니버설디자인 우수 사례집 및 고도화 자료 배포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산을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집 발굴
-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및 철학을 담은 자료 배포



[그림 151]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우수사례집²

03 유니버설디자인 성과 및 정보 DB화

- 유니버설디자인 성과공유회 및 콜로키움, 우수사례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웹 데이터 베이스(DB) 구축
- 보도, 공원, 건축물 등 공간별 우수 사례와 계획·설계 시 고려할 정보까지 상세한 자료 구축



[그림 152] 디자인 DB화 사이트³

¹ 흥지인, “네이버 상징, 녹색창에서 ‘그린닷’으로…“모든 서비스 시작점””, 연합뉴스, 2018.11.16., <https://www.yna.co.kr>

² magMA, “Universal Design Studio”, <https://magma-shop.com>

³ ACUKLAND DESIGN MANUAL, <https://www.aucklanddesignmanual.co.nz>

4-3-12. 실무자 교육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디지털 환경 구축

추진전략4

○ 배경

- 정부혁신 3대 전략 8대 중점과제 중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기술적 변화를 통해 편의성을 더하는 행정서비스 디지털화 가속
- 디지털약자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100% 기준)에 비해 약 82~95%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 불평등으로 디지털 격차 발생
- 디지털 화면은 감각적 요소가 배제되어 시각장애인에게 인지하기 어려운 접근성 한계 발생

○ 필요성

- 행정분야의 디지털화 가속화에 대비한 인터페이스 기준 및 정보가 많은 디지털 화면 개선 필요
- 디지털약자도 사용하기 쉬운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해 디지털 환경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실무자 교육 필요
- 시각장애인 및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한 디지털 조작 방식 변화와 디지털 화면을 인지할 수 있는 보완 기술적 연계 필요



[그림 153] 추진과제12 필요성

○ 기본방향

-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디지털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자 대상 교육 시행

○ 세부 내용

01 디지털약자 배려 실무자 교육 시행

- 디지털 환경을 공급·설계하는 개발자, 디자이너, 실무 담당자 등의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교육 시행
- 디지털 관련 실무자 교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적용 유도



[그림 154] 디지털 실무자 교육 1

02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디지털 화면 설계 교육

- 누구나 쉽게 디지털 화면을 조작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정보 제공 및 쉬운 화면 설계 기준 마련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사용 방법을 표기하거나 영상으로 보여주는 등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제공하도록 교육



[그림 155] 인지하기 쉬운 무인정보단말기 화면 2

03 인공지능(AI) 서비스 연계를 통한 디지털 격차 해소

- 디지털 화면 설계 및 정보 제공 시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각 보조 음성 안내 서비스 연계 고려
- 디지털 보조기기 개발 및 시각 보조 음성 안내 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



[그림 156]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보조기기 3



[그림 157] 정보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는 기기 및 서비스 4

1 유형수, “여주시,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실시”, 경인매일, 2021.04.06., <https://www.kmaeil.com>

2 이주옥, “디지털 약자, 키오스크 앞에서 ‘눈치’ 안 봐도 돼요”, 애플경제, 2022.07.18., <https://www.apple-economy.com>

3 SKtelecom, “SKT, 시각장애인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실시”, 2023.09.10., <https://news.sktelecom.com/198025>

4 최예원, “모아드림, SMARTIO Edu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및 정보 생산성 향상...”, 에이빙, 2023.11.14., <https://kr.aving.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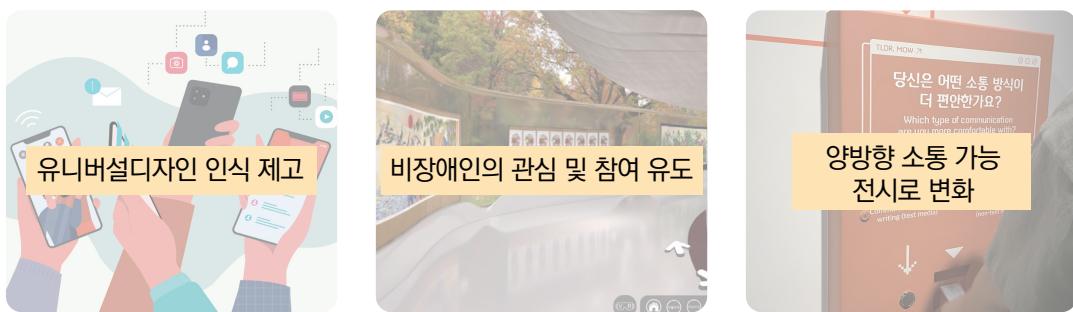
4-3-13. 체험·체감형 유니버설디자인 전시 추진전략4

○ 배경

- 시민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지율은 온·오프라인 평균 66.6%, 유니버설디자인 용어 인지 경로는 SNS가 41.9%로 온라인 매체가 우세
- 장애인의 유니버설디자인 인지율은 76.4%인 반면 비장애인은 67.1%로, 비장애인의 유니버설디자인 인지율이 장애인보다 9.3% 낮은 차이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이해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 DDP 내 유니버설디자인 전시공간인 UDP 조성 및 운영(2024년 종료 예정)

○ 필요성

-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SNS 및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필요
- 비장애인의 유니버설디자인 관심 및 흥미를 유발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적극 활용 필요
-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전시로 접근 방법에 변화를 주고, 사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전시 필요



[그림 158] 추진과제13 필요성

○ 기본방향

-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체험형 전시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세부 내용

01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전시

-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어디서든 관람할 수 있는 메타버스 및 온라인 전시 개최
- 관심도가 높고 흥미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지율 향상 유도



[그림 159] 메타버스로 참여하는 전시 1

02 오감으로 느껴보는 오프라인 체험형 전시

- 휠체어, 보행기 등 불편함을 몸소 체험해 보면서 공감하고 직접 깨달아보는 체험 전시 구성
- 반맹, 백내장, 망막증 등 증상별 도구를 통해 공감하는 체험 콘텐츠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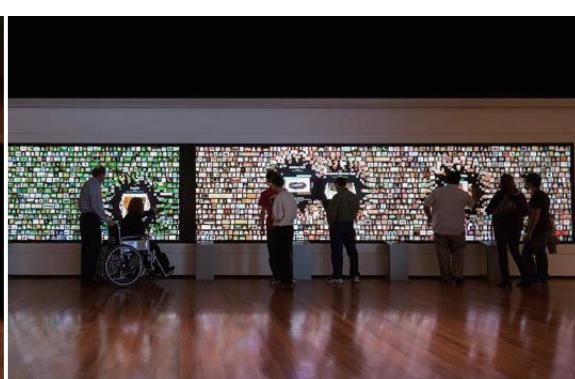
[그림 160] 체험형 전시 및 도구 2

03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전시

- 사용자의 참여로 약자 및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 전시 구성
- 아이부터 고령자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쉽게 다가가는 전시 구성



[그림 161] 참여하는 인터랙티브 전시 3



[그림 162] 미디어로 체험하는 전시 4

1 이정환, “배화여대 아동보육과, 메타버스 활용한 UN&ON 전시회 개최”, 한국대학신문, 2022.11.14., <https://news.unn.net>

2 한은정, “[소년중앙]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 “의자 높이만 바뀌어도 앉기 편하네””, 중앙일보, 2018.04.16., <https://www.joongang.co.kr>

3 F.A., “[Interview] 인터랙티브 미디어 & 디자인 그룹 : 리즈닝미디어”, <https://froma.co>

4 arte365, “둘 이상의 가치 ‘인터랙티브 아트’”, 2017.07.31., <https://arte365.kr/?p=60335>

4-4. 실행전략

- 추진과제 및 선도사업의 단계별 전략을 통해 단기·중기·장기적 방안을 마련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점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계획
- 본 계획의 목표연도인 2028년까지 5개년간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추진 로드맵 마련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예산(2023년 기준)인 9.5억에서 약 1.5배 증진하여 관련 예산의 점진적인 확대 방안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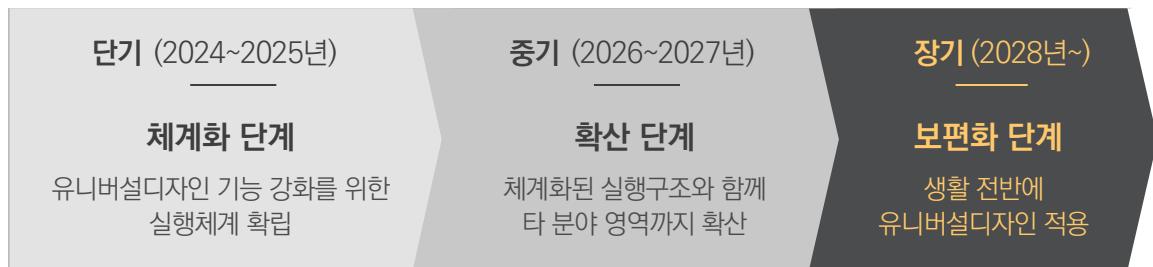
단기 (2024~2025년) ————— 중기 (2026~2027년) ————— 장기 (2028년~)

추진전략	추진과제
친근한 UD	교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이용이 편리한 심리 안정 공공의료시설 개선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인지 강화형 학교 통학로 구축 모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활력 있는 공개공지 개선 모두를 위한 다감각 인지향상 스마트 안내디자인
즐기는 UD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서울산 유니버설디자인 특화 ★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서울형 관광안내센터 개선 ★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공공한옥시설 개선 다감각을 활용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전시공간
편리한 UD	전 세대를 포용하는 초세대 놀이공간 조성 ★ 디지털약자를 위한 키오스크 구성 가이드라인 개발 보행약자를 위한 인지하기 쉬운 점자블록 개선 재난약자를 위한 사고 대응형 생활도로 개선 주거약자를 배려한 노후공공주택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나누는 UD	게임으로 만드는 학교 UD맵 및 교육 고도화 ★ 실무용 유니버설디자인 사례집 제작 및 DB화 실무자 교육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디지털 환경 구축 체험·체감형 유니버설디자인 전시

추진예산 합계

[표 22] 단계별 추진전략

- 유니버설디자인 기능을 강화하고 실행체계를 확립하는 단기, 체계화된 실행구조로 타 분야 영역까지 확산하는 중기, 생활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장기 방안으로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추진예산(천원)
					660,000
					580,000
					600,000
					800,000
					555,000
					650,000
					565,000
					620,000
					600,000
					590,000
					250,000
					750,000
					605,000
					480,000
					73,000
					280,000
					80,000
					400,000
1,460,000	1,688,000	1,850,000	2,105,000	2,035,000	7,938,000

★ 선도사업

제5장 실행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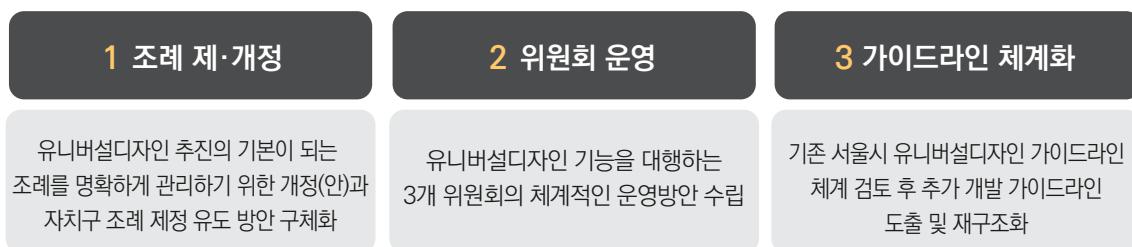
5-1. 실행방안 개요	94
5-2. 관리 및 운영체계	95
5-3. 실행 및 확산 역할	101

제5장 실행방안

5-1. 실행방안 개요

5-1-1. 관리 및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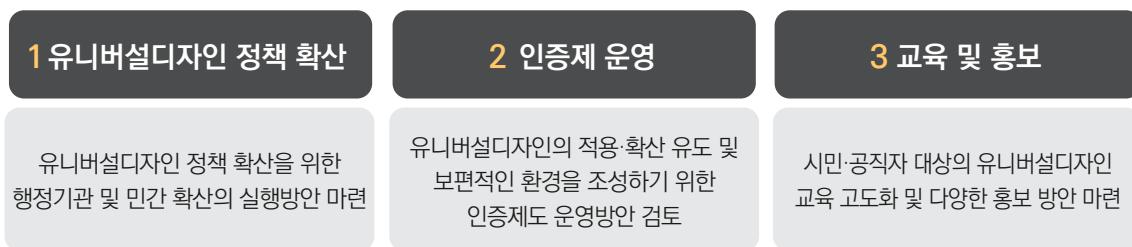
- 유니버설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 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체계화 방안 마련



[그림 163] 관리 및 운영체계 개요

5-1-2. 실행 및 확산 역할

- 유니버설디자인을 실행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확산,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 운영, 교육 및 홍보방안 구체화



[그림 164] 실행 및 확산 역할 개요

5-2. 관리 및 운영체계

5-2-1. 조례 제·개정

○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현행 조례 검토

- 현 조례상 물리적 영역에 한정된 적용 범위, 확대된 범위 필요
 - 주로 공공건축물, 시설물, 공간 등 적용 범위가 물리적인 영역에 한정
 -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도시조성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 확대 필요
 - 공간 및 환경뿐만 아니라 정책 사업, 서비스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항목까지 포함 필요
- 위원회 심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항목 보완
 - 조례상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수립 및 고도화 내용 미포함
-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주체의 역할 불명확
 - 서울시와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역할 및 기능 명확하게 구분
-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
 - 유니버설디자인 지원 방안 및 관계기관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구체화

○ 조례 개정 방향

- 시대적 변화에 대응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 확대(제7조)
 - 기존의 물리적인 범위인 공간, 건축물, 시설 등 외에 시설 내 사용 제품·서비스 관련 내용 추가
- 심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위원회 기능 추가 및 명확화(제13조)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수립·고도화에 관한 심의 대상 추가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기능 구체화(제20조)
 -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실행적 역할 명확화
 - 서울시에서 실행하는 내용 조문 삭제 및 대외협력, 인증제도 관련 연구 추가
- 인센티브 대상 및 관계기관 범위 구체화(제21, 23조)
 - 인센티브 지원 대상 구체화(별표3 추가)
 - 관계기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대상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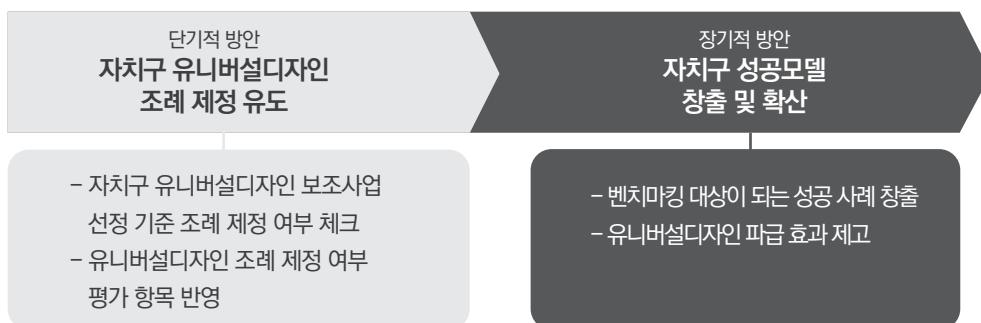
○ 자치구 조례 검토

- 서울시 자치구의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률은 28.0%(25개 중 7개 제정)에 불과
-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조례 제정을 유도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방안 필요

○ 자치구 조례 제정 유도방안

01 자치구 보조사업 선정 기준에 조례 제정 여부 반영

- 서울시 보조사업 선정 기준에 자치구 조례 제정 여부를 추가하여 조례 제정 유도
-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방안으로서 성공모델 확산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방안 마련



02 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조례의 필요성 강조

-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공공디자인 교육과정 및 실무자 대상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효과 설명
-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교육 운영 과정에서 조례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 프로그램 효과 안내

5-2-2.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 관련 인터뷰

-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심의 다수
 - 사업 초기 단계부터 내용적 자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절차 보완 필요
- 위원회 담당자가 심의도서 점검표 작성의 진위여부 판단이 어려운 상황
 - 사업계획, 과업지시서 작성 단계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를 선행 검토뿐만 아니라, 후행 제출 점검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문·컨설팅 절차 요구
- 공공디자인과 중첩되는 심의가 다수이므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신설보다는 현재 기능대행 위원회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 필요
- 각 위원회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능 강화 방안 필요
 - 다양한 위원회에서 분야별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통한 교류 활동과 내용적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조사항목/대상	서울시 심의위원	서울시 위원회 담당자	유니버설디자인 심의 수행회사
기능대행 관련 사항	공공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항이 다수 연계되어 기능대행 필요	원 위원회와의 내용 상충 시 조율에 어려움 존재	현장 여건, 예산 등에 의해 반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고려 필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사전계획이 가능한 절차는 정책적으로 확대		유니버설디자인 분야 심의위원의 전문성 확보 필요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검토사항	사업 발주 담당자, 수행회사의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지식 부족, 교육 필요	심의 도서 점검표 작성의 진위여부 판단 어려움	사업 초기에 반영 가능한 절차 운영
별도 위원회 구성 필요성	현행 위원회 내 소위원회 등을 통한 기능 강화	조례만으로 별도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어려움	중복, 과도한 행정절차 지양 필요

[표 23] 위원회 운영 인터뷰 결과

○ 단계별 운영방안(단기)

01 위원회 심의 사항 모니터링

- 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유도하기 위해 자주 반복되는 내용이나 법적인 사항을 제외한 심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배포
- 심의 사항 반영 확인을 위해 준공 단계에서 심의 이행 결과 보고서(의결서) 제출
- 유니버설디자인팀에서 심의 사항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체계 구축

02 타 위원회 협조 강화

- 타 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조례, 기본계획 등 주요 사업의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위촉 확대 검토
- 타 위원회 일정 및 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단계별 운영방안(중·장기)

01 유니버설디자인 전문성 강화

- 기능대행 구조는 유지하되, 유니버설디자인 비상설 위원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기본계획, 조례 등 주요 심의 사항에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위촉 확대
- 유니버설디자인 심의 전문가 인력풀을 컨설팅 자문단과 연계하고, 일관성을 갖춘 컨설팅 기능 및 전문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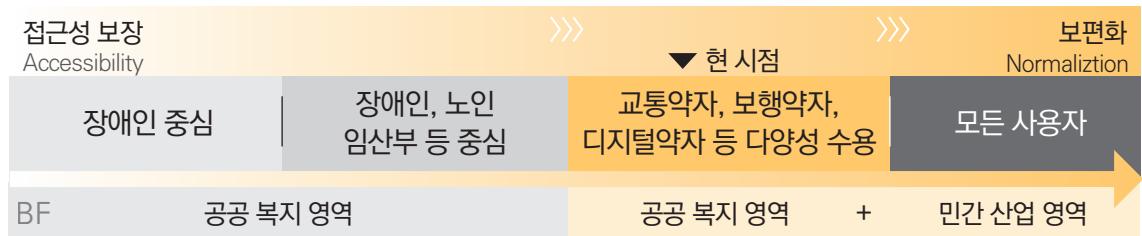
02 신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유형 대응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 확장에 따라 신규 사업 유형에 대응 가능하도록 넓은 범위의 다양한 분야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위촉
- 기존 건축·시설 분야 위원회의 기능 대행이 어려운 교육 등의 프로그램, 서비스 등 신규 사업에 대응 가능

5-2-3. 가이드라인 체계화

○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 과거 물리적인 접근성 개선 위주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관점에서 다양한 이용자를 포함한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의 변화에 따라 보편화된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 향후 유니버설디자인 보편화로 생활에 밀접한 민간 산업(제품, 서비스 등) 영역까지 확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적 가치 제고 필요



[그림 238]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 단계별 추진방안(단기)

01 유형별 가이드라인 체계화 및 타 가이드라인 연계

- 기본조례 적용 범위에 따른 적용지침 영역 현행화
- 적용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세부 사항에 대해 건축 용도별, 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으로 재구조화

02 정보 체계화 및 웹서비스 제공

- 실무자 활용의 제약 해소와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웹서비스 적극 활용
-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컨설팅 연계 및 웹서비스 현행화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주체의 정보 교류 및 체계 명확화

○ 단계별 추진방안(중·장기)

01 점검표(체크리스트)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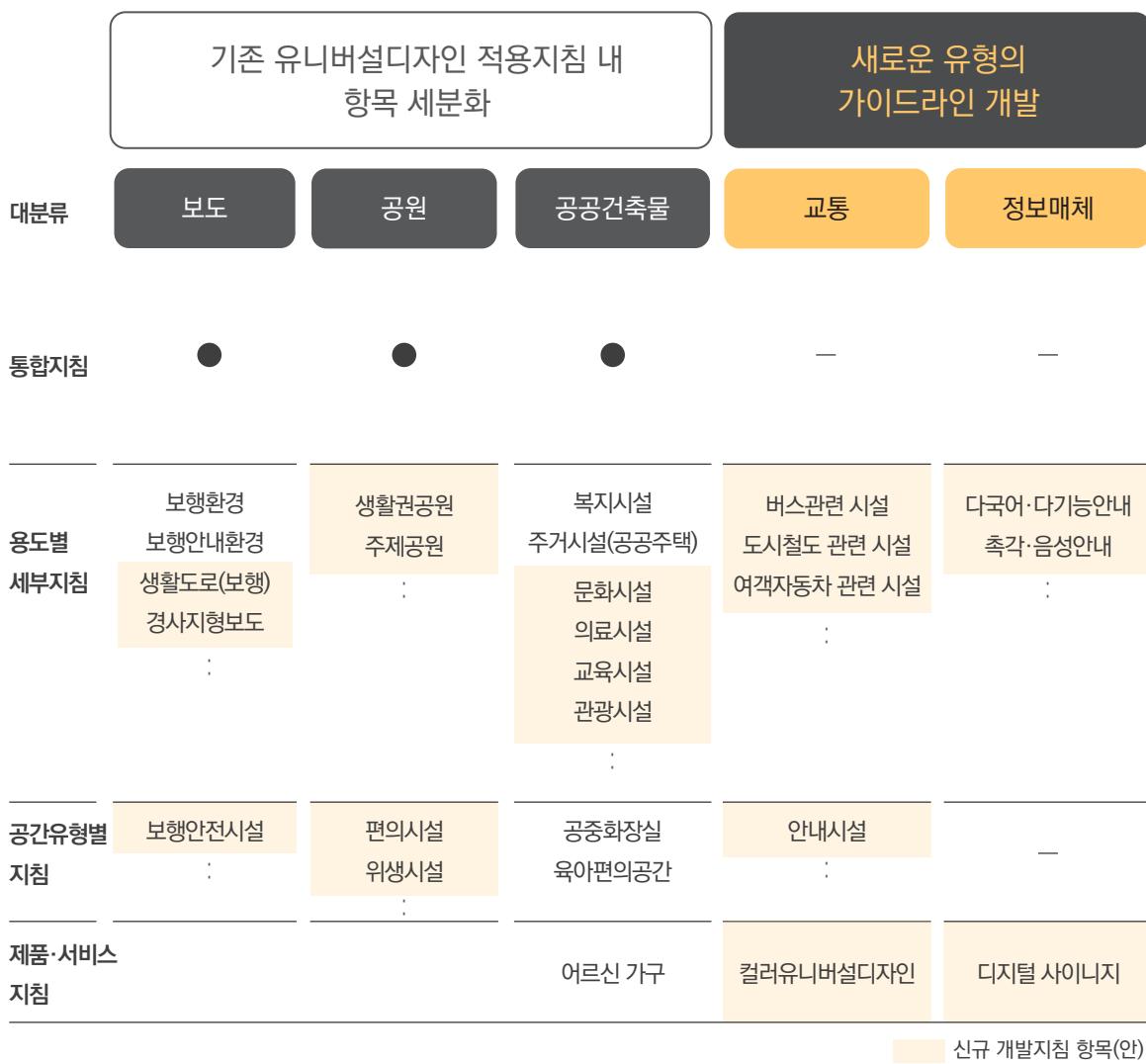
- 건축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시 점검표 제출을 통한 심의 대체에 따라 행정 절차 표준화계획 수립 및 건축 용도별, 사업 유형별 점검표 고도화 및 평가 체계 연계 필요

02 인증제 연계(제품, 산업)

- 가이드라인 및 점검표 고도화를 바탕으로 제품, 산업별 확산을 위한 인증제 시행과 연계

○ 가이드라인 재구조화(안)

-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세분화가 필요한 분야의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
- 현재 복지시설에만 집중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을 확장하여 문화, 의료, 교육시설 등
가이드라인 추가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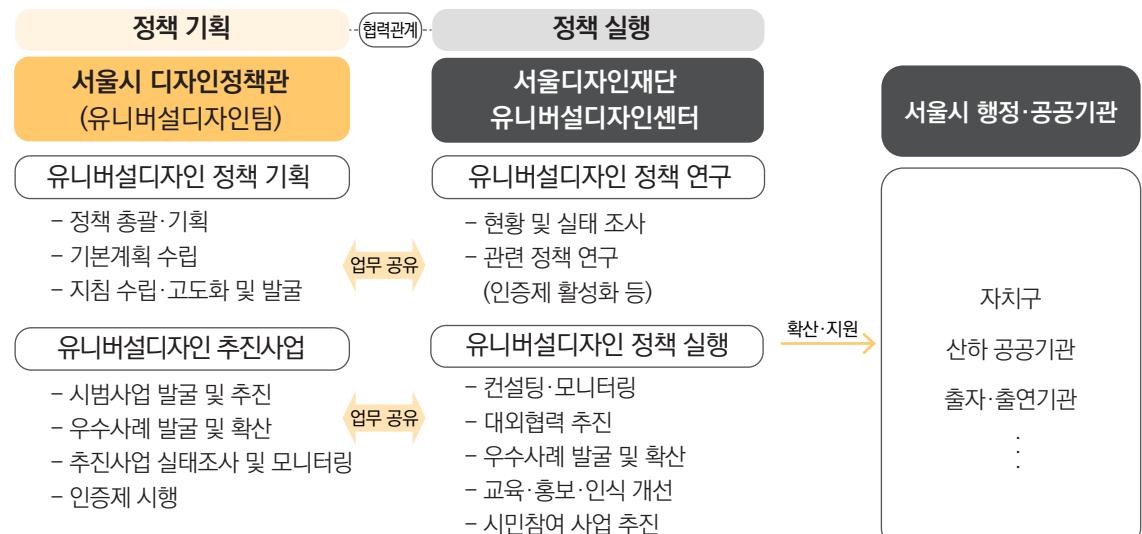


5-3. 실행 및 확산 역할

5-3-1.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확산

○ 행정기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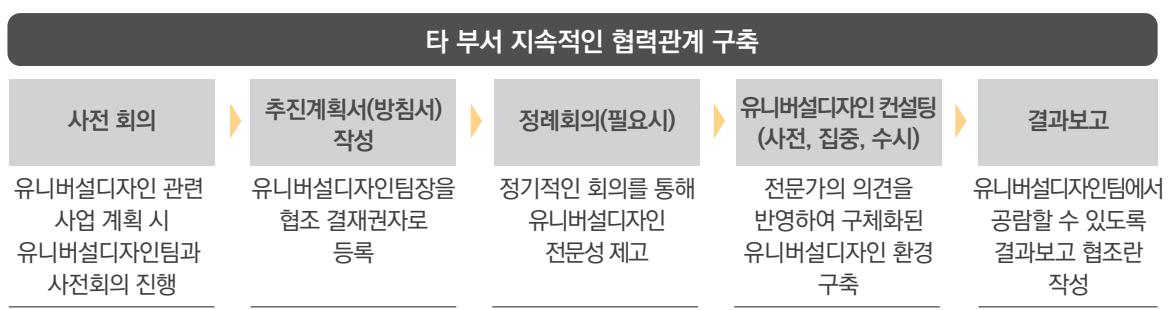
-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성과 관리 및 협력 방안과 서울시 행정·공공기관에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그림 167] 전담부서 및 관계기관 협력 구조

○ 실·국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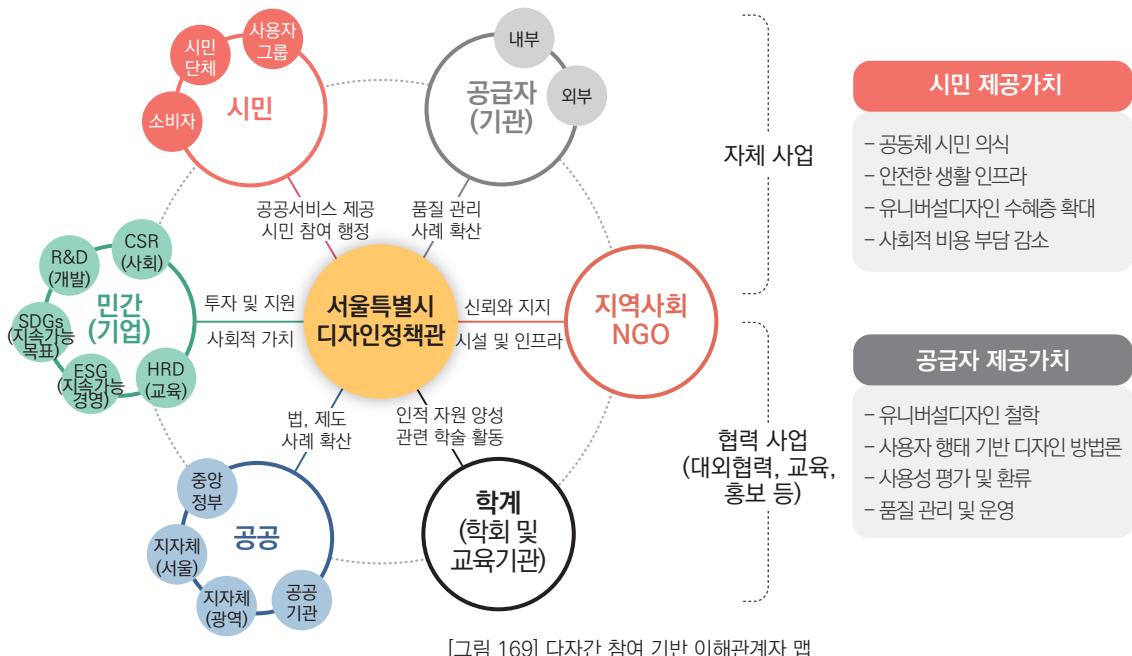
- 5개년간 서울시 실·국의 사업 계약현황을 분석하여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 및 협력하기 용이한 부서는 보행자전거과, 관광산업과, 재난안전정책과로 도출
- 유니버설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협의·지원



[그림 168] 실·국 확산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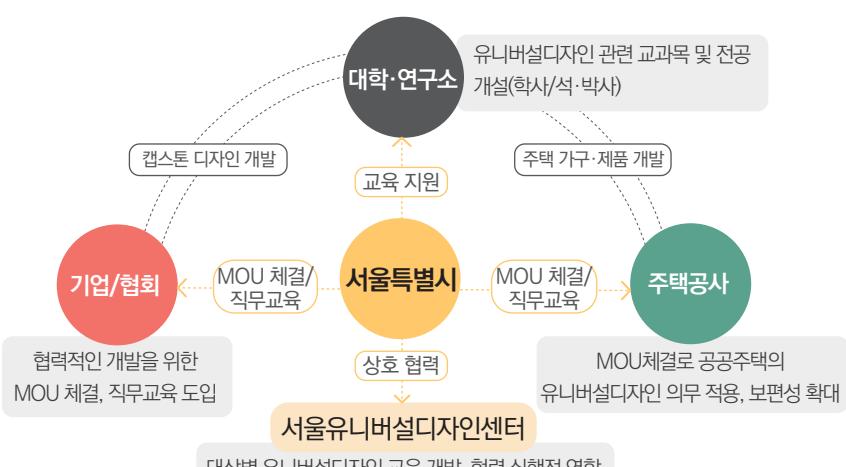
○ 이해관계자 협력체계

- 다변화된 수요층에 대응 가능한 이해관계자 지도로 수혜층인 시민, 사업에 참여·핵심 가치를 개발하는 민간, 사업의 기회를 제공·지원하는 공공의 가치 세분화



○ 산·학·연 협력체계

- 유니버설디자인을 다양한 분야에 확산시키고, 정보 교류 및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강화
- 다방면의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도화하고, 관계 전문가 배출 목표



6-3-2. 인증제 운영

○ 인증제 현황

01 정부 인증제

- 기존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증제는 특정 계층 대상, 법적 최소 기준의 시설 중심으로 시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	고령친화우수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증대상<ul style="list-style-type: none">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증대상<ul style="list-style-type: none">고관절 보호대, 고령자용 침대 사이드레일, 방수시트 등 36개 고령자 이용 제품인증기관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그림 171] 정부 인증제 현황

02 서울시 인증제

- 2010년부터 서울시의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2021년에 서울관광재단의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을 시행하면서 무장애에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확장되는 추세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증대상<ul style="list-style-type: none">민간 건축물(설계, 공사준공, 기준 시설물) 및 부분인증(약국, 소매점, 장애인 화장실 등)인증기관 : 서울시(인증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증대상<ul style="list-style-type: none">숙박시설, 음식점, 카페, 쇼핑시설, 편의점 등 관광객 이용시설 300개소인증기관 : 서울관광재단

[그림 172] 서울시 인증제 현황

03 타 지자체 인증제

- 순천시가 지자체 최초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했고, 공공디자인 및 경관 심의 대상을 중심으로 진행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증대상<ul style="list-style-type: none">공원,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물, 공동주택 등공공디자인 및 경관 심의 대상인증기관 : 순천시

[그림 173] 타 지자체 인증제 현황

○ 기준 인증제 한계점

- 건축물 설계에 관한 인증은 접근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다루고 있으며, 사용자를 배려한 편의성 및 사용성에 대한 기준 미흡
-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인증이 없어 시설 이용에 불편

○ 인증제 필요성

01 다양한 사용자 및 대상 확대

- 서울시 곳곳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적용·확산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도적 방법으로 인증제 필요
-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대상 우수모델을 발굴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 기대

02 심리적 만족 및 인지 요소 고려

- 단순히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에서 나아가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기준으로 인증 필요
- 최종적으로 민간 시설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연계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산업 활성화 목표

03 비물리적 영역까지 확장

- BF에서 다루기 어려운 소프트웨어, 교육 등 비물리적인 요소까지 확대하여 시설 이용의 심리적 만족도 제고
- 기존의 환경 및 시설에 편중되어 있는 사업을 비물리적 영역까지 확대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연계한 인증 지표 개발 필요

○ 단계별 전략(단기)

01 시범적용 단계

- 우선적으로 공공시설물 및 안내사인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행하고, 점차 적용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항목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유도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및 컨설팅 점검표, 인증 기준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체계 구축
- 인증제 시행 규정 제정으로 인증 시행에 필요한 기틀 마련
- 인증받은 시설을 정보지도와 연계하여 접근성에 대한 정보 확대

02 적용 범위 확대 단계

-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제품과 행정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요소까지 범위 확대
- 공공시설의 인증 제품 설치를 유도하고, 서비스 도입을 활성화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영역 확장
-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센터 홈페이지에 인증받은 대상을 공개하여 자체적인 홍보 효과 기대

○ 단계별 전략(중·장기)

민간 시설 확산 단계

- 유니버설디자인법안 입법 시 민간 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 구체화

등급	등급 기준	혜택
PLATINUM(최우수)	인증 기준 90% 이상 준수	용적률 완화 검토
GOLD(우수)	인증 기준 80~90% 미만 준수	인센티브 제공
SILVER(일반)	인증 기준 75~80% 미만 준수	인센티브 제공

[표 25] 등급별 차등혜택 인센티브 방안

-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시설물·제품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설치 및 이용에 큰 파급효과 기대

6-3-3. 교육 및 홍보

○ 수요 계층별 고도화 교육방안

01 시민, 지역사회의 인식 중심 교육

- 시민 및 지역사회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식과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해 몰입감 있는 흥미로운 교육 발굴
- VR체험,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을 발굴하여 온라인 교육 플랫폼(서울런 등)과 연계
- 인성·창의 교육 고도화, 디지털약자 및 재난약자용 교육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정보 제공

02 기관, 공공의 철학 중심 교육

-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해 기관 및 공공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철학을 중심으로 교육 발굴
- 건축, 도시, 주택 등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플랫폼 강의를 제공하고, 오프라인으로는 국제 세미나, 콜로키움, 사례 워크숍, 체험교육 등 다방면으로 구축

03 학계, 기업의 실무 중심 교육

- 정책 확산적인 관점에서 학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발굴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동향 공유 및 콜로키움, 실무사례집을 온라인에 배포, 파급력 제고
- 건축사무소와 설계 등 유관 업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 시행



[그림 174] 수요 계층별 고도화 교육방안

○ 홍보방안

01 시민 다수이용시설 홍보

- 시민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다수이용시설 및 광장에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교육 홍보



[그림 175] 지하철역 랩핑 홍보(행사 관련)



[그림 176] 편안한 공간 조성 및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

02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행사

- 자주 노출될 수 있는 장소 곳곳에 홍보 및 이벤트를 개최하여 일상에서 빈번하게 만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사 및 이벤트 계획



[그림 177] 플리마켓 홍보 행사



[그림 178]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제품 홍보

03 함께 실천하는 시민인식 개선

-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실천형 캠페인과 SNS를 통한 홍보를 함께 병행



[그림 179] 참여형 시민인식개선 캠페인



[그림 180] SNS 활용 소통형 홍보 콘텐츠 확산

부록

인식조사지(시민, 공직자)	110
그림차례	121
표차례	127

인식조사지(시민)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식조사

[시민 대상]

안녕하십니까? 본 인식조사는 <제2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을 파악하는 설문지입니다. 서울시 내 유니버설디자인 관점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인식조사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내용은 계획에 필요한 참고 자료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됩니다.

- 주관부서 :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유니버설디자인팀
- 조사기관 : (주)투엔티플러스,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 소요시간 : 15분 이내

성별	①남 ②여	현재 거주지 (ex. 서울 중구 등)
연령대	①만 10세 이상~20세 미만 ②만 20세 이상~30세 미만 ③만 30세 이상~40세 미만 ④만 40세 이상~50세 미만 ⑤만 50세 이상~65세 미만 ⑥만 65세 이상	
현재 거주지 거주기간	①1년 이하 ②1 ~ 3년 ③3 ~ 5년 ④5 ~ 10년 ⑤10년 이상	
직업	①사무직·전문직 ②상업·공업·서비스업 ③농업·임업 ④학생 ⑤주부 ⑥무직 ⑦기타()	
유형 분류*	①장애인(장애유형:) ②임산부 ③휠체어, 보행기 등 사용자 ④외국인 ⑤위 유형과 함께 거주 ⑥해당없음	
용어의 정의	* 배리어프리란,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말합니다. * 유니버설디자인란, “국적,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 유형 분류는 이용자별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I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정도

1.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배리어프리(Barrier Free)’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유니버설디자인 및 배리어프리(BF)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면,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검색(네이버, 구글등) ②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등) ③ 미디어(TV, 라디오, 신문등)
④ 학교 교육 ⑤ 주변인 ⑥ 관련 심의 참여 ⑦ 기타()

4. 유니버설디자인과 배리어프리(BF)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차이가 있음
- ② 차이가 없음(같은 개념임)
- ③ 비슷한 개념임
- ④ 모르겠음

5.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이해하고 있음
- ② 어느 정도 이해함
- ③ 이해하지 못함
- ④ 전혀 모름

II. 현재 서울시 현황

6. 과거 5년전에 비해 서울시의 공공환경(이동성, 접근성, 편의성, 정보성 등)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훨씬 나아졌음
- ②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음
- ③ 보통
- ④ 전혀 바뀐 점이 없음

6-1. (①, ②번 응답자) 어떤 유형에서 가장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공공간(보도, 공원, 광장 등)
- ② 공공건축물(공공청사, 복지센터, 보건소 등)
- ③ 민간건축물
- ④ 교통시설(버스정류장, 지하철, 터미널 등)
- ⑤ 공공시설물(벤치, 볼라드, 보행펜스, 가로등 등)
- ⑥ 정보매체(종합안내사인, 방향안내사인, 이정표 등)
- ⑦ 기타()

7. 서울시의 현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분야에 대부분 적용됨
- ② 일부 분야에 적용됨(생활, 관광, 교통 등)
- ③ 별로 적용되지 않음
- ④ 적용되었는지 잘 모르겠음

III.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필요성

8.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필요하며 시급히 확대해야 함
- ②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③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함
- ④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적용할 필요가 없음

9. 서울시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시급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공공간(보도, 공원, 광장 등)	② 공공건축물(공공청사, 복지센터, 보건소 등)	③ 민간건축물
④ 교통시설(버스정류장, 지하철 터미널 등)	⑤ 공공시설물(벤치, 불라드, 보행펜스, 가로등 등)	⑥ 정보매체(종합안내사인, 방향안내사인, 이정표 등)

10. 구체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시급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도 등 안전한 보행환경
- ② 버스, 지하철 등 편리한 교통수단
- ③ 접근이 용이한 건축물
- ④ 재난 등의 대비가 철저한 건축물
- ⑤ 모두가 편리한 주거공간
- ⑥ 편의성이 증진된 의료시설
- ⑦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의 문화관광
- ⑧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시각정보매체
- ⑨ 시민들의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 ⑩ 민간영역으로의 확산
- ⑪ 기타()

11. 유니버설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 ① 안전성
- ② 편의성
- ③ 쉬운 접근성
- ④ 환경의 쾌적성
- ⑤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성
- ⑥ 기타()

IV. 주요 유형별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1) 보행환경

12. 서울시 내 보도 보행 시 가장 불편하고 개선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좁은 보도폭
- ② 높은 경사도 및 기울기, 단차
- ③ 파손된 보도블록
- ④ 부족한 편의시설(휴지통, 벤치 등)
- ⑤ 불법 주·정차 차량
- ⑥ 교통제어시스템(신호등 등)의 부재 혹은 차량위협
- ⑦ 복잡한 안내정보체계
- ⑧ 기타()

13. 서울시 내 개선되었으면 하는 보행공간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어린이·노인 등의 보호구역

② 이면도로(골목길)

③ 구릉지 경사지형

④ 차량연계공간(횡단보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등)

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⑥ 기타()

2) 공원 및 광장

14. 서울시 내 공원/광장 공간 이용 시 가장 불편하고 개선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단차, 기울기, 경사 등으로 어려운 접근성
- ② 보행이 불편한 산책로
- ③ 휴게시설의 부족(벤치, 그늘막 등)
- ④ 다목적 화장실의 부재
- ⑤ 화장실의 청결
- ⑥ 복잡한 안내정보체계
- ⑦ 어두운 야간조명
- ⑧ 놀이시설 부족(운동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기타 체험기구, 볼거리 등)
- ⑨ 기타()

15. 서울시 내 개선되었으면 하는 공원 및 광장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한강공원

② 균린공원

③ 어린이공원, 소공원

④ 체육공원

- ⑤ 대시민 이용 광장
- ⑥ 기타()

3) 교통환경(차도, 버스 및 지하철 이용시설 등)

16. 서울시 내 교통시설 이용 시 가장 불편하고 개선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버스·택시 정류장의 접근성
- ② 대기 공간의 의자 부족
- ③ 저상버스 부족
- ④ 지하철 출입구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 ⑤ 지하철 연결 엘리베이터
- ⑥ 지하철 출입구 안내사인
- ⑦ 공영주차장 내 보행통로 부재
- ⑧ 복잡한 안내정보체계
- ⑨ 기타()

17. 서울시 내 개선되었으면 하는 교통환경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버스, 택시 정류장
- ② 지하철 출입구
- ③ 지하철 환승구간
- ④ 지하철 탑승 및 대기공간
- ⑤ 공영주차장
- ⑥ 기타()

4) 공공건축물(공공청사, 복지센터, 보건소 등)

18. 서울시 내 공공건축물 이용 시 가장 불편하다고 느낀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건축물로의 접근성(계단, 경사로)
- ② 출입문의 개폐 방식
- ③ 시설 안내사인 등의 부재
- ④ 배려가 부족한 주차시설
- ⑤ 화장실의 청결문제
- ⑥ 다목적 화장실 부재
- ⑦ 복잡한 안내정보체계
- ⑧ 기타()

19. 서울시 내 개선되었으면 하는 공공건축물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청, 구청 등의 공공청사
- ② 행정복지센터
- ③ 보건소
- ④ 복지관

⑤ 경로당

⑥ 기타()

20.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귀중한 시간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식조사지(공직자)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식조사

[공직자 대상]

안녕하십니까? 본 인식조사는 <제2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을 파악하는 설문지입니다. 서울시 내 유니버설디자인 관점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인식조사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내용은 계획에 필요한 참고 자료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됩니다.

- 주관부서 :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유니버설디자인팀
- 조사기관 : (주)투엔티플러스,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 소요시간 : 10분 이내

성별	①남 ②여	현재 거주지 (ex. 서울, 종구 등)
연령대	①만 10세 이상~20세 미만 ②만 20세 이상~30세 미만 ③만 30세 이상~40세 미만 ④만 40세 이상~50세 미만 ⑤만 50세 이상~65세 미만 ⑥만 65세 이상	
현재 거주지 거주기간	①1년 이하 ②1 ~ 3년 ③3 ~ 5년 ④5 ~ 10년 ⑤10년 이상	
근무기간	①1년 이하 ②1 ~ 3년 ③3 ~ 5년 ④5 ~ 10년 ⑤10년 이상	
소속기관/부서 및 업무	소속기관 및 부서 :	담당업무 :
용어의 정의	* 배리어프리란,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말합니다. * 유니버설디자인이란, “국적,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I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정도

1.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배리어프리(Barrier Free)’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유니버설디자인 및 배리어프리(BF)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면,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인터넷 ② 유튜브 ③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④ TV 및 라디오 ⑤ 지자체 교육 및 홍보
⑥ 신문 ⑦ 온라인 강의 ⑧ 학교 교육 ⑨ 관련 심의 참여 ⑩ 기타()

4. 유니버설디자인과 배리어프리(BF)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차이가 있음 ② 차이가 없음(같은 개념임) ③ 비슷한 개념임 ④ 모르겠음

5.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이해하고 있음 ② 어느 정도 이해함 ③ 이해하지 못함 ④ 전혀 모름

Ⅱ.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인지여부

6.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해 2016년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음 ② 어느 정도 알고 있음 ③ 잘 모름 ④ 전혀 모름

6-1. (6번 ①, ② 응답자)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 내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및 변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음 ② 조금 도움이 되었음 ③ 보통 ④ 도움이 되지 않았음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

7.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함 ② 어느 정도 필요함 ③ 보통 ④ 필요하지 않음 ⑤ 전혀 필요하지 않음

7-1. (7번 ①, ② 응답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유니버설 관점에서 총괄하는 조례 필요
② 보편적인 인권 개념으로의 인식확산
③ 행정적인 실효성 확보
④ 유니버설디자인의 적극적인 적용
⑤ 기타()

7-2. (7번 ④, ⑤ 응답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이 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공디자인 조례와 통합이 필요함
② 건축, 복지 등 관련법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중 규제로 생각됨
③ BF와의 큰 차이를 모르겠음
④ 기타()

8.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전담부서를 알고 있습니까?

- ① 알고 있음 ② 모름

8-1. (8번 ① 응답자)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전담부서에서 담당하는 아래 사업 중 어떤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
②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고도화(유형별 가이드라인 포함)
③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지원

- ④ 유니버설디자인 초등교사 교육
- ⑤ 공무원 대상 인재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 ⑥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온라인 : I-UT, 오프라인 : DDP 내 위치)
- ⑦ 서울스마트맵 내 이동약자 정보 접근성 지도 서비스
- ⑧ 기타()

III.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9. 서울시에서 발행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통합지침, 유형별 복지시설, 시민편의공간 등)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음
- ② 어느 정도 알고 있음
- ③ 잘 모름
- ④ 전혀 모름

10. 서울시에서는 보행공간, 공원, 공공건축물 신/개축시 유니버설디자인을 의무적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 ① 알고 있음
- ③ 모름

11. 서울시에서 발행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② 없음

11-1. (11번 ①응답자) 가이드라인이 관련 사업 추진 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음
- ② 조금 도움이 되었음
- ③ 보통
- ④ 도움이 되지 않았음
-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

11-2. (11번 ②응답자)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이드라인의 체계가 명확하지 않음
- ② 가이드라인 종류가 많아 활용도가 떨어짐
- ③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음
- ④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움
- ⑤ 기타()

12.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이드라인의 활용체계 구축
- ② 새로운 유형의 가이드라인 개발
- ③ 활용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 ④ 상세한 지침 제시
- ⑤ 기타()

IV.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13.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전담부서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많이 있음
- ② 몇 번 있음
- ③ 보통
- ④ 거의 없음
- ⑤ 전혀 생각해본적 없음

14.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산을 위해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에 UD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UD컨설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음
- ② 어느 정도 알고 있음
- ③ 잘 모름
- ④ 전혀 모름

15. 서울시 UD컨설팅을 이용해본 적 있습니까?

- ① 있음
- ② 없음

15-1. (15번 ①응답자) 서울시 UD컨설팅을 이용했을 때, 사업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음
- ② 조금 도움이 되었음
- ③ 보통
- ④ 도움이 되지 않았음
-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

V.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16.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② 없음

16-1. (16번 ①응답자)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이 추후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음
- ② 조금 도움이 되었음
- ③ 보통
- ④ 도움이 되지 않았음
-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

16-2. (16번 ②응답자)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원하는 교육과정 및 기회가 없어서
- ② 교육과정은 있으나 제공되는 내용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 ③ 업무상 바빠서
- ④ 기타()

17.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및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필요함
- ② 어느정도 필요함
- ③ 잘 모르겠음
- ④ 필요하지 않음

18.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의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공무원 교육 의무화(공무원 필수 교육과정 개설)
- ② 교육기회 및 방법 개선(찾아가는 교육, 온라인 교육 등)
- ③ 교육 수료증 발급 등의 인증제도 마련
- ④ 교육프로그램 다양화(우수 사례 디자인투어, 체험교육 등)
- ⑤ 지속적인 교육자료 배포(온라인 뉴스레터 등)
- ⑥ 기타()

VI.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필요성

19.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필요하며 시급히 확대해야 함
- ②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③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함
- ④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적용할 필요가 없음

20.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관련 예산 확보
- ②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
- ③ 정책 담당자 및 의사결정자의 인식 제고
- ④ 관련 법 제도의 정비
- ⑤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발전을 위한 정부, 민간 협의체 구성
- ⑥ 일반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 ⑦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관련 시책의 개발
- ⑧ 부처 간 업무증복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 ⑨ 민간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 ⑩ 기타()

21.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귀중한 시간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차례

- [그림 1] 제2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배경
- [그림 2] 제2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체계
- [그림 3]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상 및 효과
- [그림 4] 서울시 생활도로 연장 및 면적
- [그림 5] 서울시 생활도로 중점 개선요소
- [그림 6] 전국 시·도 인구 현황
- [그림 7] 노령화지수 및 독거노인 비율
- [그림 8] 서울시 장애인 인구 현황
- [그림 9] 서울시 외국인 등록인구 현황
- [그림 10] 서울시 외국인 증감추이
- [그림 11] 시도별 교통문화지수
- [그림 12] 서울시 교통약자
- [그림 13] 서울시 교통약자 구성비
- [그림 14] 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 [그림 15]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비율
- [그림 16]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
- [그림 17] 고령자 낙상사고 발생장소
- [그림 18] 연도별 고령자 낙상사고 접수현황
- [그림 19] 5개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계약 키워드 분석
- [그림 20] 1차계획 전문가 IPA 분석 방법 및 결과
- [그림 21]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사업 분석 방법
- [그림 22]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업무 분장
- [그림 23]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소요 예산
- [그림 24] 시민 대상 인식조사 방법
- [그림 25] 공직자 대상 인식조사 방법
- [그림 26]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인식 조사결과
- [그림 27]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조사결과
- [그림 28] 유니버설디자인 필요성 조사결과
- [그림 29] 공간별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조사결과
- [그림 30]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조사결과

-
- [그림 31]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조사결과
 - [그림 32]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조사결과
 - [그림 3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
 - [그림 34]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동향
 - [그림 35] 차별을 없앤 무장애 놀이터
 - [그림 36] 공공시설 다목적 화장실
 - [그림 37] 접근성을 높인 공원 시설
 - [그림 38] 유니버설디자인 폰트 개발
 - [그림 39] 색약자를 위한 배색 가이드 개발
 - [그림 40] 찾아가는 현장체험교육
 - [그림 41] 프랑스 무장애 관광 인증
 - [그림 42] 일본 더 도쿄 토이렛 프로젝트
 - [그림 43] 독일 모두를 위한 여행 프로젝트
 - [그림 44] 유니버설디자인 정책목표
 - [그림 45]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2.0 전략
 - [그림 46]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2.0 5원칙
 - [그림 47] 유니버설디자인 추진방향 설정
 - [그림 48] 제2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비전 및 목표
 - [그림 49] 유니버설디자인 정책목표
 - [그림 50] 선도사업 선정
 - [그림 51] 선도사업1 필요성
 - [그림 52] 교통시설 만족도 및 연차별 수립 계획
 - [그림 53] 교통약자를 배려한 버스
 - [그림 54] NFC활용 안내시설
 - [그림 55] 보행동선을 배려한 자전거 거치공간
 - [그림 56] 보도에 설치된 킥보드 거치공간
 - [그림 57] 가이드라인 활용 방안
 - [그림 58] 교통시설 가이드라인 및 점검표 예시
 - [그림 59] 선도사업2 필요성
 - [그림 60] 연속적으로 점자가 표기된 산책로

-
- [그림 61] 진입부 접근성 강화(편의용품 대여 서비스)
 - [그림 62] QR코드로 전자지도 접속
 - [그림 63] 이동 난이도별 구분
 - [그림 64] 감각 자극 물치유공간
 - [그림 65] 치유 기반 명상공간
 - [그림 66] 가이드라인 예시 및 활용 방안
 - [그림 67] 이용 후 평가(POE) 조사 방법
 - [그림 68] 선도사업3 필요성
 - [그림 69]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는 안내표시
 - [그림 70] 안내표시의 반복 사용으로 인지 용이
 - [그림 71] 휴식공간과 연결된 관광안내센터
 - [그림 72] 다양한 콘텐츠로 활기찬 관광안내소
 - [그림 73] 맞춤형 관광 서비스 무인정보단말기
 - [그림 74] 점자·수어 기능이 탑재된 무인정보단말기
 - [그림 75] 단계별 관광정보 제공
 - [그림 76] 관광안내센터 가이드라인 예시
 - [그림 77] 선도사업4 필요성
 - [그림 78] 단차가 없는 놀이시설
 - [그림 79] 누구나 이용 가능한 놀이시설
 - [그림 80] 휴식공간이 함께 조성된 놀이터
 - [그림 81] 산책로, 휴식, 놀이가 결합된 복합공간
 - [그림 82] 오감 자극 및 전 세대가 이용 가능한 놀이시설물
 - [그림 83] 시민참여형 놀이시설 발굴
 - [그림 84]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 [그림 85] 협력 거버넌스 체계
 - [그림 86] 선도사업5 필요성
 - [그림 87] 학교 내 접근성·이동 문제점 발굴
 - [그림 88] 개선방안 아이디어 발굴
 - [그림 89] 게임으로 재미있게 배우는 교육
 - [그림 90] 보상심리 자극 미션

-
- [그림 91] 학생들의 관점에서 만드는 지도
 - [그림 92] 접근성을 표시한 지도
 - [그림 93] 안전하고 편리한 동선 표기 지도
 - [그림 94] 이동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 [그림 95] 공유가치 창출형 유니버설디자인 구조
 - [그림 96] 추진과제1 필요성
 - [그림 97] 명도 대비로 눈에 띠는 색채 적용
 - [그림 98] 인지성이 높은 색채 계획
 - [그림 99] 훨체어도 가능한 검사시설
 - [그림 100] 병원 내 긴장감 완화 요소 적용
 - [그림 101] 진료시설 바이오플릭 적용
 - [그림 102] 추진과제2 필요성
 - [그림 103] 눈높이를 고려한 통학로 안내판
 - [그림 104] 야간 인지 강화
 - [그림 105] 횡단시설 주변 색채 정리
 - [그림 106] 지능형 스마트 교통안전시스템
 - [그림 107] 과속 운전 시 요철 반응 시스템
 - [그림 108] 추진과제3 필요성
 - [그림 109] 단차가 없는 공개공지 접근
 - [그림 110] 개방성 있는 공개공지
 - [그림 111]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안내사인
 - [그림 112] 휴식·소통·산책이 가능한 공간 구성
 - [그림 113] 추진과제4 필요성
 - [그림 114] 디지털 종합안내도 화면
 - [그림 115] 촉각지도 안내사인
 - [그림 116]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연속적인 안내체계
 - [그림 117] 추진과제5 필요성
 - [그림 118] 단차시설 경사로 설
 - [그림 119] 훨내부로 접근이 가능한 훨체어 리프트
 - [그림 120] 한옥과 조화로운 안내 표지판 디자인

-
- [그림 121] 점자표기 안내 책자
 - [그림 122] 공간 예측이 가능한 점자안내도
 - [그림 123] 추진과제6 필요성
 - [그림 124] 엘리베이터 이용 동선 안내
 - [그림 125] 전체 전시공간을 인지할 수 있는 촉지도
 - [그림 126] 촉각으로 만질 수 있는 축소모형 작품
 - [그림 127] 전시 관람을 돋는 AI로봇
 - [그림 128] 디지털 휴면 수어서비스 제공
 - [그림 129] 추진과제7 필요성
 - [그림 130] 쉬운 메인화면 구성
 - [그림 131]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 [그림 132] 인지가 쉬운 버튼형 무인정보단말기
 - [그림 133] 쉬운 모드 화면 개선안
 - [그림 134] 추진과제8 필요성
 - [그림 135] 색채 대비 및 연속적으로 설치된 점자블록
 - [그림 136] 색채 대비로 시인성을 높인 점자블록
 - [그림 137] 횡단보도에도 이어지는 점자블록
 - [그림 138] 시각 장애인 보행 지원 시스템
 - [그림 139] 추진과제9 필요성
 - [그림 140] 도로 폭 좁힘 효과
 - [그림 141] 주차공간과 보행공간 분리
 - [그림 142] 비상시를 대비한 방재 공원
 - [그림 143] 재난대응 시설물
 - [그림 144] 추진과제10 필요성
 - [그림 145] 보행자 충돌주의 구간 표시
 - [그림 146] 산책 및 운동이 가능한 공간
 - [그림 147] 점자 표기 안전 손잡이
 - [그림 148] 자연을 느끼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
 - [그림 149] 추진과제11 필요성
 - [그림 150] 디자인 콜로키움

-
- [그림 151]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우수사례집
 - [그림 152] 디자인 DB화 사이트
 - [그림 153] 추진과제12 필요성
 - [그림 154] 디지털 실무자 교육
 - [그림 155] 인지하기 쉬운 무인정보단말기 화면
 - [그림 156]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보조기기
 - [그림 157] 정보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는 기기 및 서비스
 - [그림 158] 추진과제13 필요성
 - [그림 159] 메타버스로 참여하는 전시
 - [그림 160] 체험형 전시 및 도구
 - [그림 161] 참여하는 인터랙티브 전시
 - [그림 162] 미디어로 체험하는 전시
 - [그림 163] 관리 및 운영체계 개요
 - [그림 164] 실행 및 확산 역할 개요
 - [그림 165] 자치구 조례 제정 유도방안
 - [그림 166]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 [그림 167] 전담부서 및 관계기관 협력 구조
 - [그림 168] 실·국 확산방안
 - [그림 169] 다자간 참여 기반 이해관계자 맵
 - [그림 170] 산·학·연 협력체계(공공주택 분야 예시)
 - [그림 171] 정부 인증제 현황
 - [그림 172] 서울시 인증제 현황
 - [그림 173] 타 지자체 인증제 현황
 - [그림 174] 수요 계층별 고도화 교육방안
 - [그림 175] 지하철역 랩핑 홍보(행사 관련)
 - [그림 176] 편안한 공간 조성 및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
 - [그림 177] 플리마켓 홍보 행사
 - [그림 178]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제품 홍보
 - [그림 179] 참여형 시민인식개선 캠페인
 - [그림 180] SNS 활용 소통형 홍보 콘텐츠 확산

표차례

- [표 1] 유니버설디자인 유사개념
- [표 2]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
- [표 3] 유니버설디자인 8목표
- [표 4] 1차 기본계획 목표 및 전략
- [표 5] 1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및 선도사업
- [표 6] 서울시 계약 현황 분석 개요
- [표 7] 5개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계약 현황
- [표 8] 기능대행 위원회 심의대상 및 절차
- [표 9]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 체계
- [표 10] 주요시책 연계
- [표 11] 전략별 추진과제
- [표 12] 선도사업1 추진계획
- [표 13] 선도사업1 추진예산(안)
- [표 14] 선도사업2 추진계획
- [표 15] 선도사업2 추진예산(안)
- [표 16] 선도사업3 추진계획
- [표 17] 선도사업3 추진예산(안)
- [표 18] 선도사업4 추진계획
- [표 19] 선도사업4 추진예산(안)
- [표 20] 선도사업5 추진계획
- [표 21] 선도사업5 추진예산(안)
- [표 22] 단계별 추진전략
- [표 23] 위원회 운영 인터뷰 결과
- [표 24] 가이드라인 재구조화(안)
- [표 25] 등급별 차등혜택 인센티브 방안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2024-2028

기획·총괄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노수임, 이창현(전) 디자인정책담당관
이은주 유니버설디자인팀장
이한솔, 정선아(전) 주무관
서수민 주무관

연구·수행 (주)투엔티플러스
채완석 책임연구원
이영진 연구원
임형진 연구원
이선주 연구원
김지유 연구원
문혜지 연구원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변혜령 연구원
이수진 연구원
박수연 연구원
이수영 연구원

자문위원 김현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선영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영호 흥익대학교 교수
신재령 흥익대학교 교수
권성은 흥익대학교 교수

2023년 12월 30일 초판 인쇄
2023년 12월 30일 초판 발행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인 오세훈

펴낸곳 서울특별시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www.seoul.go.kr

비매품

ISBN 979-11-7177-071-7



※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으며 무단 전재나 복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활용 시 서울시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2024-2028

Seoul Universal Design Master Plan



발행일 : 2023.12

발행처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비매품/무료
95650

